

면목,
마을에 살다.

2024년 실천 기록

목차

복지관 운영목표 7

발간사 8

1. 면목4동 마을활동

주민 모임

- 면목아파트 주민 만남의 장 ‘면목다방’ 12
- 복지관 열린 모임 ‘금요건강체조’ 18
- 복지관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매화향기’ 24
- 복지관 면목아파트 주민간담회 32
- 환경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채송화 모임’ 37
- 샘터공원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오만돌’ 47
- 복지관 화요종이접기 53
- 면목4동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함께한 시간’ 60

주민들과 함께한 마을 활동

- 샘터공원 아동 책 축제 ‘제 2회 ㅋㅋㅋ북놀이터’ 65
- 2024 면목, 마을에 살다 ‘주민 책 발표회’ 75
- 주민 모임과 함께한 면목아파트 잔치 ‘가을행복’ 87
- 경로식당 환경캠페인 ‘지구사랑’..... 97

지역에서 협력하기

- 면목4동 이음가게 ‘이음이의 블로그 운영기’ 109

2. 면목7동 마을활동

주민 모임

- 오거리공원 어르신 정기활동 ‘나무 밑을 지키는 그녀들’·· 122
- 오거리공원 아동 정기활동 ‘동네를 누비는 깨킴이’ ····· 131
- 삶의 지혜를 나누는 ‘마을 선생님’ ····· 143
-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해뜰날’ ····· 151
- 사랑스러운 도그 모임 ‘사도그’ ····· 162

주민 축제

- 상반기 축제 ‘오거리공원에서 보물찾기’ ····· 171
- 하반기 축제 ‘정을 나누고 환경을 살리는 면목7동’ ····· 183

지역에서 협력하기

-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종이팩모아’ 캠페인 ····· 214
- 면목7동 ‘우리 동네를 돌보는 정’ ····· 228
- ‘이음가게’ 인터뷰 ····· 234

3. 면목3·8동 마을활동

주민 모임

- 사랑과 정이 넘치는 ‘소파공원 건강체조’ …… 242
- 면목3·8동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배밭공원 나들이’ · 253
- 소소하고 즐거운 ‘면목3·8동 건강돌봄 동네모임’ …… 261

주민들과 함께한 마을 활동

- 면동초 ‘빛나는 10대 SUNNY10’ 환경캠페인 …… 270
- 면동초 ‘빛나는 10대 SUNNY10’ 산타나눔활동 …… 280

면목3·8동 기관들이 힘을 합치다 ‘우리 마을 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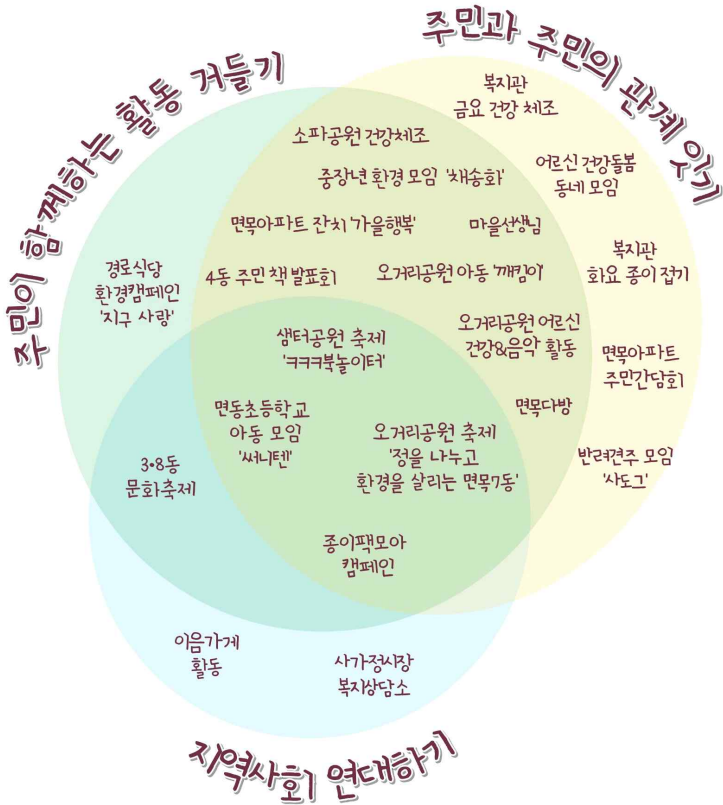
- 어떻게 하면 축제를 재밋게 할 수 있을까? …… 291
- 면목3·8동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다! …… 293
- 드디어 막이 오른 면목3·8동 문화축제 …… 295

지역에서 협력하기

-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복지상담소’ …… 303
- 사가정시장 사장님과 함께한 ‘이음가게 면탐정’ …… 309

4. 지지와 격려 322

면목의 마을활동 목표



마을활동이야기 발간사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영미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동별 복지팀으로 개편한 지도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과 주민을 잇고, 함께하는 활동을 거들며,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돌봄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2024년에도 복지관은 면목4동, 면목7동, 면목38동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모임을 통해 일상 속에서 서로를 챙기고 돌보며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단체·기관·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협력하여 진행한 동네 축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마을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도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셨습니다. 주민을 복지관에 연결하고, 행사와 사업을 알리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팔순·구순 잔치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먹거리와 선물을 마련해주시고, 동네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새로운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 서로를 돌보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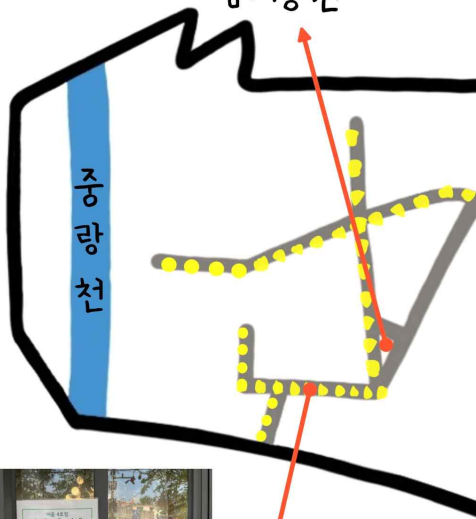
또한, 한 해 동안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열정과 수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마을활동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고, 주민들과의 따뜻한 소통, 주민들의 주체적인 성장과 마을의 변화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실천이 쌓여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늘 함께하며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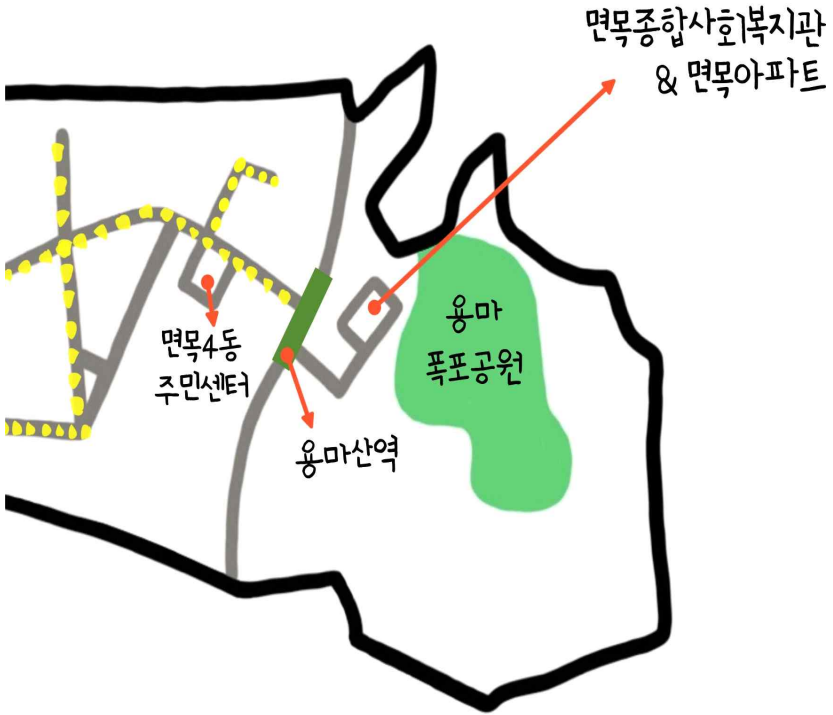
면목4동



삼터공원



이름가게
33개점



면목아파트 주민 만남의 장

면목다방

윤지영

함께한 사람들



조용히 묵묵히 늘 도움의 자리에 계신 김영자 어르신
쾌활한 목소리로 주민들을 반기는 행복미소 박무서 어르신
어려운 이웃들의 형편을 알고 챙기는 전임 어르신

마음 담은 차 한잔의 만남

| 이웃을 만나는 면목다방

3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올해는 김영자님이 면목다방에 함께 해 주셔서 전임님, 박무서님 3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작년 처음 면목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정이 있는 동네를 기대하며 면목다방을 시작한 것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나눠먹을 먹거리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좋겠네.”

“그래. 나도 집에 있는 사탕 가져올게요.”

소소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작게 열린 면목다방은 일부러 찾아오는 주민, 길을 가다 마주치는 주민, 전화를 받고 오는 주민들로 모입니다.

“아저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0동 000호님은 요양원에 가셨잖아.”



모이는 자리에서 안부를 나누고 궁금한 이웃들의 근황도 나눕니다. 마음 담은 차 한잔에 잠시 멈춰 동네의 정을 느끼는 면목다방 덕분에,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 신뢰와 믿음의 3인방

열정 넘치는 3인의 면목다방 운영 주민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동네일이라면 무조건 참여하고 즐거워합니다. 동네 축제, 주민간담회, 마을잔치에도 가장 앞장섭니다.



“어머니,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햇볕이 너무 강해 힘들지요?”

“내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은 이런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지난주에도 옆집 할머니 아프다고 반찬 해다 줬는데.”

“그럼, 저이하고 나하고는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 좋아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복지관의 크고 작은 행사에 면목다방의 3분이 늘 계십니다. 저또 한 무슨 일이 있으면 세분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접받을 나이임에도 주민들 하나하나 인사하며 준비

한 다과를 나눕니다. 아는 이웃이 나눠준 다과와 반김에 주민간담회도 동네축제도 더 즐겁고 따뜻한 마음들이 채워집니다.

| 주민들에게 기억되는 면목다방

“선생님, 우리 커피 또 언제 먹어요?”

“이따가 놀이터로 가면 되죠? 아침에 오라고 전화 왔더라고.”



소소하지만 오랜 시간 운영되었던 면목다방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웃이 나를 위해 차를 준비하고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작은 정들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은 참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차 한잔을 나누는 주민이 많아질수록 행복한 우리 마을, 우리 이웃들이 되기를 바라는 면목다방.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복지관 열린 모임

금요건강체조

이준선

함께한 사람들



운동을 사랑하시는 '면목동 주민분들'

면목동의 무도회 ‘금요건강체조’

| 2024년에도 여전히 금요건강체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복지관 경로식당에는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모여 건강체조를 합니다.



“(출석부를 작성하며) 내 이름이 뭐였더라..?”

“아니 이 양반이 왜 맨날 본인 이름을 까먹어 도대체 체조는 어떻게 안 까먹고 오는 거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지만, 건강 체조의 매력에 빠져 2년 동안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 슬슬 몸 좀 풀어볼까~~?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시작 30분 전인데”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매일 TV 보는 것보다 나오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지 뭐~”



건강체조도 하고 주민들끼리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의 장을 펼치니, 건강도 얻고 좋은 인연도 얻습니다.

본격적인 체조 시작 전, 앉아서 할 수 있는 건강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먼저 풀어줍니다. 유튜브 영상에 맞춰 따라하며, 앞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 같이 체조에 참여합니다.

이제는 2년 차 베테랑 체조인이라 팔도 쪽쪽, 다리도 쪽쪽 뺀 것도 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본격적인 체조 시작!



“자 다들 일어납시다~ 파이팅~ 파이팅~!!” 한마음 한뜻으로 다 함께 일어나 흥이 넘치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아니 젊은 선생님이 우리보다 먼저 힘들면 어떡해~~” 힘든 마음도 찰나, 트로트 음악과 함께라면 금방 잊으시고 흥이 넘쳐흘러 체조를 하다가 춤을 추기도 합니다.

|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요.

“저희 이제 주민 교실도 다 방학했고, 겨울이기도 해서 저희도 이번 달 중으로 방학을 하려고 하는데 셋째 주까지 진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주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운동한다고 해도 별로 잘 되지도 않고, 안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운동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계속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맞장구치며) 그래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같이 파이팅 해보아요!”

추운 겨울에도 금요건강체조 분들은 항상 열정 넘치시고, 그 열정 덕분에 힘을 얻어 1년을 거의 짝 채워 진행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만난 인연,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 더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매화향기

이준선

함께한 사람들



새로운 매화향기 뉴페이스 강경자 어르신

유머러스한 말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강재모 어르신

항상 따뜻한 말로 응원과 위로를 해주시는 손명순 어르신

이젠 모임의 귀여운 막내 김순현 어르신

인자한 눈빛과 양 같은 목소리의 김준희 어르신

영원한 모임의 든든한 말이 배환덕 어르신

유쾌한 웃음으로 활력을 주시는 이보선 어르신

따스한 봄에 돌아나는 꽃잎처럼 시작된 ‘매화향기’

| “당신에게선 매화향이 나네요~~♪”

매주 수요일 10시.

복지관에는 사시사철 봄 내음이 가득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보태어 ‘사월과오월-장미’를 모임에 맞게 개사하고, 활동 시작 전 노래 부르며, 모임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어느덧 모임 2년 차, 떠나보낸 사람도,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 매화향기는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 “건강은 삶의 가장 큰 선물!”



“마음은 젊은데 몸이 잘 따라주진 않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선 열심히 해야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젊고 건강합니다. 작년부터 여러 건강체조 영상을 소개했었는데, 신선함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어 여쭙봤습니다.

“매주 새로운 체조하시는 거 어떠세요?”

“매주 새로워서 따라 하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걸 익숙해질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매번 새로운 건강체조를 소개하기보다 같은 체조를 반복적으로 하니 어르신들이 점점 요령도 생기시고, 어떤 체조를 하면 더 효과가 잘 나는지 말씀을 해주셔서 모임이 한층 더 건강해지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자연 속에서 웃음 꽃피운 시간”

가을을 맞이하여 다 함께 어린이대공원으로 동물원과 식물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뒤로 들어가서 앉을게요”

“아유 고마워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다른 분들을 위해 먼저 안쪽 차에 탑승을 하거나 서로 짐을 들어주는 등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가을의 단풍처럼 농익은 모습입니다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을 구경하고, 각자 준비해 온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더 올라갔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나뭇잎들 속에서 나들이는 단순한 구경이 아닌, 그 자체로 건강과 행복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 “우리는 매화향기니까”

“우와 어르신들 모두 비누색을 보랏빛으로 하셨네요~”

“어라 그렇네?”

“서로 맞추신 거 아니었어요?”

“서로 생각이 비슷한 거지 우리 모임은 매화향기니까~(웃음)”



2024년에는 다양한 활동도 많이 했고, 변화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변경으로 반가운 인사를 했지만, 그만큼 변화에 대한 걱

정도 많았었는데, 어르신들의 지지와 협력을 보며 “매화향기”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선생님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꽃을 피우고, 봄의 희망을 알리는 고고하고 아름다운 매화처럼 2025년에도, 그 후에도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시사철 매화의 향기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복지관

면목아파트 주민간담회

윤지영

함께한 사람들



‘면목복지관이 면목아파트 주민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민이 준비하는 간담회

|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와요. 3층 아주머니 아니셔?”

“오랜만이네. 저기에 앉아요.”

면목아파트 주민간담회는 주민이 함께 준비합니다. 입구에서 인사를 나누는 주민,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돕는 주민, 자리를 안내하는 주민. 복지관에서 만나니 더 반갑고 긴장도 풀립니다.



“떡 좀 드세요.” “어르신 다과 가져다 드릴게 저기 앉아주세요.”

몇몇 주민분들과 준비한 다과를 나눕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나누어 주니 더 고맙고 맛이 납니다. 면목아파트 주민간담회는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만남과 소통의 자리입니다.

| 주민이 행복해지는 간담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 년에 한 번 면목아파트 주민분들을 초대하여 복지관의 사업을 안내하고 주민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실 프로그램과 모임들을 안내합니다.



| 복지관이 있어서 고마워요.

“경로식당이 있어서 우리들이 몇 년을 더 사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매번 무얼 차려야 할지 고민되고 잘 안 먹었는데, 경로식당 와서는 제가 밥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요.”

“복지관을 잘 운영해 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 주셔서 천국에서도 기억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면목아파트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보다 일상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위해 늘 주민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채송화 모임

허준호

함께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모임의 막내이지만 팔방미인 원동력! 강인순님
‘이렇게 만나면 좋은 거지~’ 든든한 환경 지킴이 김희순님
‘나 잘은 못해요~’ 하지만 양말목 공예 대가가 되신 박윤희님
‘모임은 처음이에요’ 배우고 만드는 것 좋아하는 박금순님
‘나도 꼭 연락줘요~’ 멀리서도 와주는 모임 큰 언니, 안옥선님
‘다들 건강하게 꼭 보아요’ 늘 기쁨을 전해주시는 이충임님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새로운 만들기 장인! 차점순님

2024년의 우리 '채송화' 모임은요!

| 이제는 2년차 베테랑 주민 모임, '채송화'

“벌써 우리 모인 지 2년이 되어가네요~”

지난 2023년 채송화 모임으로 함께 모인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양말목공예도 계속 만들어보고 되면 세탁비누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못 만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축제도 있겠고 우리도 좀 같이 바람도 쐬러 가고요”

| 양말목공예도 조금은 다르게, 하지만 뜻있게!

2023년에는 양말목 네잎클로버부터 크고 작은 티코스터 받침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티코스터 받침은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노인맞춤돌봄 어르신들 중에 팔순과 구순 생신을 맞은 분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전달도 드렸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공예품을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던 중...!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손이 좀 아픈 것 같아~ 아휴 우리도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손이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어찌지?”



(공예 만들기 고민하며 나눈 고구마 간식, 참 맛있었던 하루)

양말목 특성상 탄성이 있는 만큼 만들 때 손가락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손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지’하

며 진행했던 공예품들도 올해는 왜인지 착착 잡히지 않았습니다.

| 찾았다! 2024년 Made by '채송화' 공예품



(양말목으로 만든 동백꽃 브로치)

“이렇게 해봐 봐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아니 이쁘네~! 손도 아프지 않고 어쩜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인
순님 덕분에 또 이쁜 꽃 만들어 보네!”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다 작년 말, 시범 삼아 만들어보았던 ‘동백꽃
브로치’를 올해 주력 공예품으로 삼았습니다. 양말목을 자르고 또 글
루건으로 붙이는 작업이 생소하지만 겨울에 피는 빨간 동백꽃처럼
힘들 때 서로 이겨내자는 희망을 담아 주민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는 면목
아파트 주민 축제 ‘가을행복’ 잔치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공예를 해볼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손에 무리가 덜 가고 주민들도 쉽

게 만들 수 있는! ‘양말목 체리’가 선정되어 만들어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양말목 만들기도 알리고 ‘채송화’ 모임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행복 잔치’를 위한 사전 모임 순간!)

| 환경을 생각하는 EM발효액 세탁비누 만들기

작년에는 양말목공예와 EM발효액 나눔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활동으로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 많아 의견 나왔던 EM발효액 세탁비누 제작은 진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한번 세탁비누 만들면 좋겠어요.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 날씨만 좀 풀리고 좋아지면 한 번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비누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지사님도 꽤나 애써야 할 거

예요(웃음)”

세탁비누 만들기에 생초보인 담당 복지사의 가우똥과 함께 살랑 봄 바람 부는 4월쯤에 세탁비누를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만들 때는 힘들어도 웃으며 김치 V(브이)~)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요. 만들다가 어디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으니깐 조심하세요. 정량대로 재료도 넣어야 하니까 잘 살펴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만들면 된다는 시작과 달리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품도 더 많이 들고 힘들었지만, 힘든 일일수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한 층 가까워졌습니다.

| 맨날 일만 하지 말고 바람도 쐬러 가자~

작년에는 나들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기만 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재미나게 바람 쐬러 가자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친정댁 놀러 갈까?”

“친정댁? 어디가 친정인디?”

“날 좋은 때 궁궐 한번 가면 좋겠는데, 우리 친정이 어디긴~ 궁이지 궁궐!”

“아! (웃음) 그래요 궁궐 갑시다. 거기가 우리 친정이지 뭐~!”



(창경궁으로 (전생애)친정 나들이 다녀왔어요~)

| 우리 '채송화 모임' 참 잘 모인 것 같아

정신없이 보낸 2024년, 반가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을행복잔치'를 매개로 새로운 멤버로 박금순님과 차점순님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생겼으니 오랜만에 '채송화 모임'을 정식으로 다시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채송화 모임은요. 참 정다운 모임이에요. 막 특별하지 않아도 서로 모이는 것이 반가운 모임이고, 안부 묻고, 뭐 이쁘게 만들 것 있으면 만들기도 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있잖아, 참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멀리서도 여길 온다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모임에 새롭게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채송화 모임을 돌아보며 어떤 한 해가 되었는지 묻는 송년 모임 시간,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꼭 무엇을 해야 잘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지지고 볶더라도 크든 작든 함께 했던 추억이 쌓인 것이죠. 모이니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모이면 좋겠어요”

얼핏 보면 들가에 핀 흔한 꽃 같지만 자세히 보면形形色색이 모양과 아름다움을 갖춘 채송화, 우리는 그렇게 또 한 해 면목동이란 동네에서 꽃 피웠습니다.



(사랑해요~)

샘터공원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오고만들고돌보고

양지현

함께한 사람들



미적 감각이 남다른 우리 만언니 **김말순** 어르신
샘터공원의 환경을 책임지는 **김순희** 어르신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김양순** 어르신
손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잘 하시는 **김오기** 어르신
에너지 넘치고 호탕한 웃음 소리를 가지신 **김정자** 어르신
내 일 먼저 끝내고 다른 어르신을 도와주시는 **유춘자** 어르신
모든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위세희** 어르신
오만들의 청일점! 든든한 반장님이었던 **황재식** 어르신

오고! 만나고! 돌보고! 우리 오만들은요~

| 영차영차 건강 체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샘터공원 작은 도서관에서는 어르신 7명과 사회복지사가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시작은 몸풀기로 건강 체조를 합니다. 도서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앉아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의 구호에 맞춰 체조했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에 맞춰 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섬마을 선생님, 짙레꽃, 울고 넘는 박달재 등 어르신들께 추천받은 노래와 함께 체조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사를 보며 동작을 따라 하라, 노래도 부르라 바쁘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체조에 임하셨습니다.



가끔은 뇌 체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물오물 짹짹! 조물조물 짹 짹! 오물 짹! 조물 짹! 오물조물 짹짹!” “아이고 선생님 나 또 틀렸네!” “어머니 보면서 하다가 저도 틀려버렸네요! ㅋㅋㅋㅋ” 동작을 맞게 하는 것보다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틀려도 괜찮으니 우선 해보는 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뇌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오만돌 게임을 시작하다!



“어머니~ 저희 무슨 활동해볼까요?” vs “선생님 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해도 우린 다 좋아요~” 마치 창과 방패처럼 담당자는 어르신들께 의견을 여쭙기 바빴고 어르신들은 무얼 하든지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7월까지 체조와 종이 접기만 해왔기 때문에 지루해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여 9월부터는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게임하면서 논다고 하네요~ 저희도 한 번 해볼까요?”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 탁구공과 계란판을 이용해서 공놀이도 해보고 빙고 게임과 젠가, 컬링 등 다양한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뭐든 좋다고 하셨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의견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김양순 어르신은 “아이고 선생님 종이 접기하고 꾸미

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게임을 하니깐 마음 편하니 좋네요잉”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종이접기를 하실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하 호호 즐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고민해 오셨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죄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활동이 어렵거나 힘들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세희 어르신은 “이 늙은이들 데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불평불만을 해요. 우리 선생님 항상 고마워요.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고민하는 모임이 이왕이면 더 즐겁게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오만돌 어르신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관

화요종이접기

양지현

함께한 사람들



종이접기로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화요종이접기'

열린 모임, 느슨한 모임 화요종이접기입니다~

| 누구나 할 수 있는 종이접기



화요종이접기는 2층 경로식당에서 화면의 종이접기 영상을 보면서 따라 접는 활동입니다. 종이접기를 처음 접할 때 '난 손 떨려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들려서 못 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임에는 소중한 짝궁이 있기 때문에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고 잘 들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짝궁은 옆에 앉은 어르신이 될 수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봉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내가 집에서 접어왔어요. 꾸밀 때 쓰세요!



항상 색종이 곁표지와 색종이 봉지를 챙겨서 가시는 유병석 어른신이 계십니다. “어르신 이거 챙겨가셔서 어디에 쓰세요?”,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도 연습하려면 색종이가 필요해요. 내가 문구점에서 사기도 하지만 어차피 버리는 종이인데 내가 가져갈게요.” 어느 날 투명 비닐봉지 속에 집에서 연습한 색종이들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집에서 좀 접어봤는데~ 행사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저렴한 색종이 파는 곳을 잘 아는 김기복 어른신이 직접 접은 한복을 비닐봉지 한가득 가져오셨습니다. 한복에는 귀여운 스티커도 붙어 있었습니다.

두 어르신 덕분에 ‘동네 축제’와 ‘제 2회 ㅋㅋㅋ 북놀이터’ 곳곳에 종이접기 작품이 전시될 수 있었고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 종이접기는 방학하지 말아요~ 나 심심해!

24년 12월, 어르신들께 잠시 방학하는 것은 어떤지 여쭙보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종이접기는 방학하지 말아요~ 나 심심해!’, ‘다른 수업도 다 방학했던 말이에요, 이거까지 방학하면 나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라 저희 종이접기는 연중무휴! 모임이 되었습니다. 느슨한 모임이기에 5명이 모이나, 20명이 모이나 언제나 모임은 진행됩니다!

| 언니 우리 이렇게 꾸며볼까?



어르신들께서 화요종이접기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친구를 만들었으

면 하는 마음에 옆에 앉은 어르신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각자 종이접기를 한 후 2-3명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처음에는 빨꼼하게 나의 색종이만 붙이곤 했지만, 이제는 “언니가 색칠을 잘하니까 언니가 색칠해 주고 내가 붙이는 역할을 할게.” “내가 눈을 잘 그려. 루돌프 눈은 내가 그릴래.” 이제는 역할 분담이 확실해져서 착착 진행됩니다.

| 우와~! 이렇게도 꾸밀 수 있구나?



같은 종이접기를 해도 항상 다른 작품이 나오는 것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듯이 다람쥐와 도토리를 접어서 붙이는 방식도, 각각의 색깔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서로

의 취향에 맞춰 작품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종이 접기가 끝나면 앞으로 나와 서로의 작품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머 이 언니는 이렇게 하셨네?’, ‘우리는 마주 보게끔 붙였는데, 여기는 위, 아래로 붙였네~ 우리도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어르신들의 열정에 힘입어 화요종이접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면목4동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함께한 시간

최진주

함께한 사람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날씬이 **맹춘자** 어르신
다정함 속에 까칠함을 숨기고 있는 **임을순** 어르신
연약하여 늘 챙겨주고 싶은 **정정애** 어르신
솜씨와 인기로 주목받는 **김기복** 어르신
동료들을 잘 챙기고 배려심 깊은 **양순자** 어르신
자기계발에 힘쓰는 **박금순** 어르신
우아한 차분함을 지닌 **김선임** 어르신
유쾌한 웃음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노수자** 어르신

면목4동 어르신 동네모임, 특별한 첫걸음

| 건강도 챙기고, 이야기꽃도 피우고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면목4동 어르신 동네모임은, 각자의 개성과 관심사를 가진 8명의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고 서로를 챙기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매번 모임에서는 건강 체조를 함께 하고, 소소한 만들기 활동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 '지구가 몸살났어요' - 환경오염 교육도 놓치지 않았죠!

어르신들은 최근에 진행된 '지구가 몸살났어요' 주제로 환경오염에 대해 이야기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웠습니다. "소 방귀에 세금을 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라고 깜짝 놀라기도 했죠! OX 퀴즈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지식도 쌓았습니다. "집에 분리배출 봉투가 하나 더 늘었어요!"라고 말하며, 실생활에 도움이 된 배움을 기뻐한 어르신들!



| 테라리움 만들기, 꽃과 함께한 마지막 만남

어느새 어색함을 넘어 서로를 챙기고 걱정하는 사이가 된 어르신들! 올해 마지막 모임에서는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식물은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요!", "모래색이 너무 예쁘네요"라며 서로의 취향에 맞게 모래색을 고르고, 투명 화분에 '테이블야자'를 예쁘게 심었어요. 서로 잘 키워보라며 다짐도 했죠!



| 모임 이름, 이제 우리가 지을 시간!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모임 이름을 예쁘게 정해보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장미반 어때요?" "예쁜 장미로 해요~"

결국, 내년에는 '장미반'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기로 하며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해에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 특별한 모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샘터공원 아동 책 축제

제 2회

‘ㅋㅋㅋ 북놀이터’

양지현

함께한 사람들



면목4동 이음가게 33개점 사장님

우리부동산, 맘찬, 복음전파사, 슬기로운카페, 신세계할인마트, 용용떡볶이, 크린토피아, 한우리문구, 철민이네과일가게, 현대부동산, 위시아이꽃풍선, 피자스쿨용마산역점, CU중랑그랑데점, 직화파불고기, 텃츠포터리, माम김밥, माम빨래방, 뚜레쥬르용마산역점, 면목떡집, 하나슈퍼, 꽃들의 이야기, 동호건재, YSL문화창작공간, 토탈광고디자인메이아이, 경남부동산, 소소커피데일리, 금천이발소, 아리따미용실, 뽕다방, 소미경한복전문점, 카페인코너, 카페홀작, 해늘당

자율방법대 강성길·김창숙 대장님 샘터공원 아동 예빈

마을 주민 박무서, 박윤희, 안옥선, 이경희

으쌔으쌔! 축제 준비하기

| 우리 축제, 우리가 직접 준비해봤어요!

[아이들의 축제 준비]



“선생님 작년에 했던 축제 이번에도 하는 거예요? 우와 재밌겠다!” 제 2회 ㅋㅋㅋ 북놀이터 축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도와주었어요! ‘ㅋㅋㅋ 북놀이터’ 한 글자씩 각각 맡아서 꾸며주었습니다. 체크무늬, 줄무늬, 하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양으로 글자를 꾸미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북놀이터라는 축제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표지도 색칠해 주었어요. 빨간모자, 백설공주, 해님달님, 별주부전,

책과 콩나무 등 추억의 동화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왜 색칠하는 거예요?” “저는 공주님 있는 그림 색칠해 볼래요!” 매주 목요일 샘터공원에서 아이들과 만나며 곧 있을 축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아이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같은 표지도 누가 색칠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우리동네에서 축제를 한다고? 어떤걸 준비해줄까요?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축제 준비]



축제에서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샘터공원 2층 공간을 빌려주셔서 무더운 여름 진행자들의 쉼터와 간식 준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방법대 대장님들, 물과 과자, 떡, 빵과 같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던 사장님들, 종이컵과 봉투, 과자 그릇 등을 준비해 주셨던 사장님들 덕분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축제를 준비할 때는 무려 3달에 걸쳐 이음가게를 다니며 사장님들과 함께 물품을 준비했지만, 이번 축제를 준비할 때는 단 1달! 한 달 만에 모든 준비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2년 연속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 사장님들도 점점 베테랑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축제 주제가 뭐가요?” “ㅋㅋㅋ복놀이터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구나!” “작년엔 너무 더웠는데 이번에는 한 달 일찍 하나까 좋네요~ 덜 덥겠다!” 걱정과 격려, 응원이 사회복지사가 더욱 힘내서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자아자! 축제 진행하기

| 든든한 주민활동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언제나 넘치는 에너지로 함께 있으면 덩달아 힘이 나는 박무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접수 및 평가 부스를 맡아 아이들에게 간식 나눠주시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드는 걸 잘하니까 체험 부스에 열심히 참여할게요!” 부끄러워하시지만 축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 발 벗고 나서 주시는 안옥선·박윤희 어머니입니다. 수박모자 만들기 부스에서 아이들이 수박 모양의 모자를 만들고 개성 있게 꾸미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한 번 해볼게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주민 활동가로 참여해 주신 이경희 어머니입니다. 책 퍼즐 맞추기 부스에서 제한 시간 내에 아이들이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어머니들 덕분에 걱정 없이 부스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제 2회 ㅋㅋㅋ 북놀이터의 숨은 주역



제 2회 ㅋㅋㅋ 북놀이터의 숨은 주역! 복지관의 공익 선생님들과 샘터공원에서 매주 만나 알게 된 예빈 친구를 빼놓을 수 없죠~ 공익 선생님들은 각각 바람개비 만들기, 책 미로 탈출하기, 릴레이 책 쓰기 부스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체험 부스였기에 인기가 많았던 바람개비와 책 미로 탈출 부스는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아이들에게 친절히 설명 해주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었습니다. 릴레이 책 쓰기 부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있었을 텐데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곧잘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예빈 친구는 평가부스에서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사진 부스에서 소품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학교를 마치고 힘들 텐데도 축제에 봉사자로 참여해서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항상 예빈 친구가 있었습니다.

재밌었다! 축제 마무리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제 2회 ㅋㅋㅋ 북놀이터’ 어떠셨나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오셔서 즐겨주셔서 풍성한 축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6월의 무더웠던 샘터공원도 아이들의 열정과 활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또 덕분에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힘을 내서 축제를 준비하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음가게 사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33곳의 이음가게 사장님들께서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물을 좀 주면 되나?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돈으로 주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주시는 도움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전혀 작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크기보다는 함께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아가 함께 축제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저의 작은 소망을 이곳에 적어봅니다.

사회복지사 홀로 준비했다면 이렇게 재미난 축제를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샘터공원 친구, 학부모님, 봉사자님, 공익 선생님, 이음가게 사장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에 숨은 능력자들을 방방곡곡 더 열심히 찾아다니겠습니다!

| 2025 샘터 축제 미리보기

이번 축제에 혹시 종이접기 작품을 발견하신 분 계시나요? 사실 복지관의 화요종이접기 어르신들께서 취미 삼아 접으신 작품들을 저희 직원에게 주셨습니다. 기관에만 두긴 아까워서 축제에 꾸며보기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잘 꾸몄는지 구경 오셨을 때 어르신들께서 즐길 수 있는 부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내년도 목표! 아이들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만들기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을 활동 실천 기록,
'2024 면목, 마을에 살다'
주민 책 발표회

허준호

함께한 사람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주민들과 차 나누며 모이는 **‘면목다방’**
금요일마다 복지관에서 건강 체조로 모이는 **‘금요건강체조’**
목요일 3층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으로 만나는 **‘문학하는할매’**
다음 세대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인 **‘맑은 모임’**
환경과 나눔을 생각하며 모이는 **‘채송화 모임’**
웃음이 필요할 때 서로 모여 즐거움을 더하는 **‘희희낙락’** 모임
텃밭 가꾸며 서로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행복한 텃밭’** 모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면목4동 면목아파트 동네 **‘매화향기’** 모임과
아래 주택가 동네 **‘오만들’** 모임

2024년 뜨거웠던 주민모임의 현장 속으로

|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발표회

2022년 면목복지관의 마을 활동 실천 기록집인 ‘면목, 마을에 살다’가 [2023년 실천 기록 ‘면목, 마을에 살다’]로 두 번째 발간이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 기록집에는 면목 4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했던 크고 작은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모임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담긴 만큼 주민들이 실천 기록을 주민들과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의 먼저.



(여름학기 사회복지 실습생도 함께 회의 참석)

“면목 4동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이니 4동의 주민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4동에 주민 모임이 많이 있지만, 각 모임마다 본인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발표회가 무엇이 있을지 모두 머리를 모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주인공¹⁾을 찾아보니 몇몇 설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주안점은 ‘나’와 ‘다’함을 초점으로 하였습니다. 주제는 ‘보이는 라디오’ 지금도 TV채널에서 유명한 ‘O퀴즈’의 아이디어를 착안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대표적인 마을에서 있었던 소식은 MC²⁾가 전하되, 주민들이 직접 발표 자리로 나와 각 모임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로 펴내고자 하였습니다.

1) 가. 연극, 영화, 소설 따위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나.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드러나지 아니한 관심의 대상.
2) 2024년 7월 23일 주민 책 발표회에 김경아 실습생과 허준호 사회복지사가 MC로 활동함.



(주민들이 복지관 2층 발표회장까지 오시며 각 모임 이야기를 먼저 보실 수 있도록 꾸민 복도)

각 주민 모임 담당자들은 담당하는 모임 분들과 발표회날이 있는 날까지 어떤 이야기를 발표할지 열띤 시간을 보냈습니다.

| 어서오세요, 면목 4동 주민 발표회 날

짧지만, 함께 하는 주민들과 2023년을 추억하고 앞으로는 면목 4동 주민이 서로 어울려 행복을 도모하는 동네를 꿈꾸며 모든 주민 모임이 열정을 다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달달한 식혜와 매실차 내왔지요)

“어서 와요 우리는 면목다방팀이에요~ 여기 차 한잔 들어가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이면 우리 요 앞에 놀이터 공터에서 다방 열어요. 자주 놀러 와요~”

발표회 전부터 오시는 주민들에게 차 나눔을 준비해 주신 ‘면목다방’ 전임, 박무서, 000님 따뜻한 커피 원하시는 분은 바로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는 ESG 경영방침을 실천하고자 친환경 종이컵으로 환경도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삽니다.



“우리 금요건강체조는요~ 금요일마다 건강을 찾고요! 재미도 있고
 요! 오기만 하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와요. 꼭 오세요~!”

“우리는 여기 선생님이 다 챙겨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오
 면은 체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좋아요! 이름이 오만돌이에요!”



“우리 맑은 모임은 환경을 생각하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요” “우리는 채송화 모임인데 우리도 환경도 생각하고 나누기
 도 해요. 양말목도 만들고 EM발효액도 나눴어요”



“3층에 오면 도서관 있지요? 우리 문학하는할매는 거기서 모여서 같이 책도 읽고 배우기도 하고 하여간 재미나게 모이는 모임이에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모이고 체조도 하고 얼굴도 보고 나들이도 가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아요. 우리 매화향기 너무 좋아요~!”



“복지관 옆 공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예쁘게 화단이 있어요. 오다가 다 이빠서 따가는 분 있는데 맛보기는 먹어도 화단을 잘 지켜주세요~”
 “웃으면 복지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름부터가 희희낙락이에요. 우리 모임에 들어만 와도 웃음이 나고 음악도 배우고 너무너무 좋지요~!”

주민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 면목 4동의 자랑인 “서로 어울려 지내니 살기 좋은 동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만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참! 주민 책 발표회 때 반가운 소식을 하나 더 나누었습니다. 면목 4동에 멋진 조력자! ‘살맛나는 우리 동네 이음가게’와 함께 한 활동도 신문으로 펴내어 주민분들에게 공유하였답니다!



| 주민 발표회 에필로그 1 - 실습생 후기

“어땠나요? 우리 면목 4동 주민들의 멋진 추억들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시고 끈끈한 모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다 주민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주민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자리만 만들어드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진행하며 이해가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주민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함께 하지 않았어도 그 순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주민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장 잘 와닿았어요.”

여름, 더운 날씨이지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였던 사회복지 대학교 실습생과 주민 발표회를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 덕분에 주민들과 함께 살맛나는 동네 만드는 방법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 주민 발표회 에필로그 2 - 무엇이 가장 좋으셨나요?

발표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하였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발표회를 진행하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동네, 더 자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마을에게

하고 싶은 말

- 한 마디씩 적어주세요 !!
정말은 같이 적어주세요 !!

화이팅 선승아

즐거움

응원합니다

행복합니다

권금순

김미리

오래 행복하세요. 잊음순.

화이팅 양순자

응원합니다

박은희

감사합니다

정은희

바명록

우리 마을에게

하고 싶은 말!



김정례 즐거운

하루 즐거운 날 됩니다

강재모

오늘 하루 즐겁게 쉬어다

잡니다

화이팅 이보선

화이팅 김광호

오늘 즐거운 하루다 원경갈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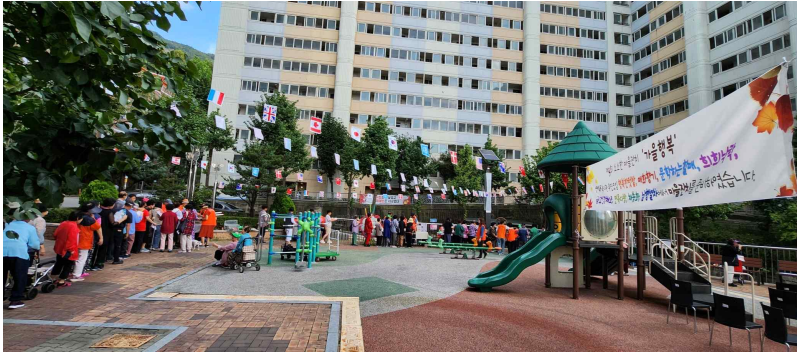
장강선 사랑 해오 오늘 노력

주민 모임과 함께한 면목아파트 잔치

가을행복

윤지영

함께한 사람들



금요건강체조_공순남 박임자 심강구 유병석 전순희 정미자
남행열차_남승오 박상철 오봉수 이희문
매화향기_강재모 강경자 김준희 김순현 배환덕 손명순 이보선
면목다방_김영자 박무서 전 입
문학하는할매_김복순 김혜숙 송원호 윤등자 이현주
채송화_강인순 김희순 박윤희 안옥선 이충임 정랑자
행복한텃밭_김경례 김애심 박춘자 인향애 유정례 이영례 정갑선 조정금
차점순
희희낙락_공경숙 김오기 양순자 임을순
노래자랑 심사_최순자

제 3회 가을행복 마을 잔치

| 8개의 주민 소모임

올해도 많은 주민 소모임에서 가을행복 마을 잔치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할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중요했고, 참여하는 소모임 당사자들이 즐거운 마을 잔치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작년에 부침개 부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옷놀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상품으로는 우리 집에 좋은 사탕이 많이 있어 나누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보니 음료를 나누니 좋더라고요. 우리 모임은 음료에 참깨
과자를 같이 드려볼 계획이에요.”

“우리는 올해 참여할 인원이 많지 않아요. 부스 운영은 힘들고 안내
나 노래자랑을 도우면 어떨까 해요.”

음식을 여러 가지 만들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
동아리에서 즐겁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로 정하였습니다. 각 모임의
사정에 따라 총 8개의 부스가 정해졌습니다.

| 이웃을 만나는 마을 잔치



날이 참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살랑이는 바람에 만국
기가 주민들에게 손짓합니다. 만국기 풍경에 주민들도 함께 마음이

들뜬다. 익숙한 웃놀이지만 오랜만이라 더 반갑습니다.

“어머~ 아저씨 웃이 나왔네.”

“나 한번 더 던져봐도 돼요? 웃이 커서 쉽지가 않네”

웃놀이 주변으로 주민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행복한 텃밭 주민들이 운영한 웃놀이판에 웃이나 모가 나오면 함께 박수도 치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웃놀이판을 중심으로 마을 잔치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금요건강체조에서는 안내티켓과 건빵, 음료를 나누어 줍니다.

“뽕튀기 가져가세요!”

면목다방에서는 미리 포장한 뽕튀기를 바로바로 나눠주니 고맙고 참 맛있습니다.

매화향기에서 나무열쇠고리 만들기를 운영합니다. 좋아하는 모양을

골라 색칠만 쓱쓱 몇 번하면 완성이 되니 참 쉽고 즐겁습니다. 채송화모임에서는 양말목을 이용해 꽃 만드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양말목을 두세 번 감아 매듭을 몇 번 지으니 동백꽃이 완성됩니다.



작년에 이어 따뜻한 차를 준비한 문학하는 할매에서는 커피와 참깨 과자를 정성껏 준비해 나눕니다.

“딩동댕동~~~~!”

마지막으로 시끌벅적한 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MC복덕이 3년째 노래자랑 MC로 활약합니다. 올해는 빨간 반짝이 의상으로 더욱 전 문가 다운 심사를 줍니다. 희희낙락 팀들은 노래자랑 심사를 하느라

매우 신중합니다. 10명만 참여하기로 했는데 자꾸만 참가자가 늘어나 심사에 더 신중을 기합니다.



| 처음 참여한 중장년 소모임_남행열차

중장년 남성모임 ‘남행열차’도 함께하였습니다. 면목동에 거주하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반찬을 만들고, 식사하는 모임입니다. 가을행복 마을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2주 동안 직접 달여 만든 수정과를 나눕니다. 정성스러운 수정과에 대추와 잣을 넣어주니 자꾸만 손이 갑니다.

남행열차는 가을행복을 통한 나눔을 시작으로 지역에 있는 고시원과 혼자 하시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해 김치와 반찬도 나누고, 크리스마

스 행사를 위해 복지관에 풍선데코도 만들었습니다. 가을행복 잔치의 즐거움이 중장년 남성들이 새로운 나눔들을 시작하게 돕습니다.



| 오래갈 수 있는 주민이 즐거운 모임

소소하지만 4동 주민소모임이 만든 가을행복 마을 잔치로 오랜만에 이웃을 만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움도 나눕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이 아쉬울 만큼 마을 잔치도 어느새 막을 내립니다. 잔치를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 정리하며 다음 잔치를 평가합니다.

“웃놀이 선물이 다 나가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커피를 오후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엔 오후에 드실 수 있는 메뉴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어요.”

“초반에 사람이 많아서 양말목을 많이 못 가르쳐 드렸어요. 나중에는 잘 도와드리고 진행했습니다.”

“수정과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좋았습니다.”



평가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을행복이 마무리됩니다. 주민들과 만나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동네 사람이란걸 얼굴을 봐서 알지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뽕튀기 나눔 하나에, 수정과 나눔 하나에 얼굴을 마주하고 이웃이 됩니다.

오래갈 수 있는 마을 잔치를 상상해 봅니다. 면목4동 주민 소모임이 주체가 되어 더 많은 주민 소모임들이 생기고 더 풍성한 마을 잔치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당사자가 즐겁고 행복한 마을이면 좋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 캠페인

지구사랑

박민아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 다 같이 환경을 지켜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하시는 것들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아껴 쓰고 다시 쓰는 것, 모으고 절약하는 것만큼은 어르신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9월부터 하반기 동안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환경 실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관에서 ESG 실천에 발맞추어 공용컵 세척기를 설치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지양하게 된 흐름과 평소 경로식당 내에서 자주 의견이 나왔던 휴지 사용 이슈, 어르신들이 잘하고

계신 것을 더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니 네 가지가 추려졌습니다. 첫째, 다회용컵 사용, 둘째, 휴지는 적게 2~3번만 뽑고 가능하면 손수건을 쓰기, 셋째, 대체식을 담아갈 때 주머니를 사용하거나 깨끗한 비닐 재사용, 넷째, 종이팩 분리배출이 그 내용입니다.



더불어 달마다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을 주제로 잡고 환경실천과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잘 버릴지 ‘해요? 마요?’ OX 퀴즈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카스 뚜껑을 달아서 버려야 한다네. 그래야 안 깨지는구나.”

“종이컵이 썩는데 20년이 넘게 걸려? 손주 다 클 때까지 안 썩는다는 거네.”

첫 달은 분리배출을 주제로 삼아 팩모아정거장 참여와 도시락김 포장지 분리배출에 힘을 썼습니다. 3년 전부터 종이팩을 일일이 씻고 자르고 말려서 가져오시는 박현순 어르신을 필두로 팩모아정거장을

처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생겨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찢고 자르고 말리는 사전작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집에서 먹고 남은 종이팩을 2~3개, 10개씩 모아서 박현순 어르신께 전달하면 어르신이 함께 정리해서 팩모아정거장에 넣어주셨습니다. 경로식당 점심식사 때 도시락김이 나오는 날에는 도시락김 포장지는 비닐류, 김이 담긴 통은 플라스틱, 습기제거제는 일반쓰레기로 구분해서 버렸습니다.



이벤트 참여 인증사진을 첨부 해 주세요.

*2차 이벤트-자원순환의 날 참여미션 : 재활용품 분리수거, 다회용품 사용 인증 사진
 (1인 중복사진 접수불가, 단순사용(머그컵 등)제출 지양)
 *최소 1장~최대 5장 이내 / 최대 파일크기 10MB

지정되는 파일을 최대 5가지까지만 첨부하세요. 파일당 최대 크기는 10MB입니다.

- 다회용품 사용 ... X
- 경로식당 분리배 ... X
- 종이팩 분리배출 ... X
- 종이컵 분리배출 ... X
- 플라스틱병뚜껑 ... X

이벤트 참여소감을 작성 해 주세요.
 *이벤트 미션에 참여한 소감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1줄~3줄 이내)

경로식당에서 김포를 병용 기법 도시락김이 나오면 비닐과 플라스틱,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
 적절히 재활용을 위해 종이팩을 따로 모아둔 지 붓치 순창청! 모두의 힘으로 플라스틱 병뚜껑
 모아 기부까지! 어르신들과 일상 속 환경 실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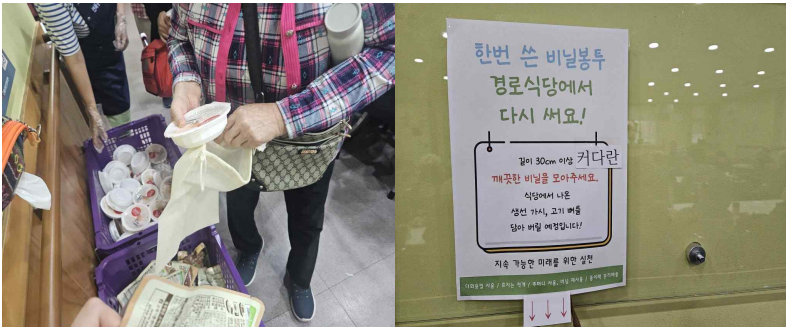
위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ESG 실천캠페인 자원순환의 날 미션에 참여해봤습니다. 평소 개인 물병을 잘 들고 다니시는

안향애 어르신께 캠페인 내용을 말씀드리니 인증사진을 흔쾌히 찍어 주셨습니다. 지구사랑 캠페인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속에 물든 환경실천

| 소소한 발견! 환경실천 어렵지 않아요

매주 금요일은 토요일에 식사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을 대체식으로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반복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한번 쓴 비닐봉투 다시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대체식을 가져갈 때 주머니를 챙겨오시는 것도 안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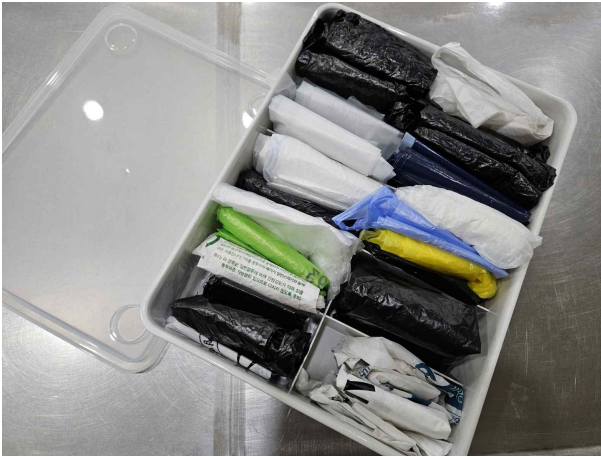


한쪽에는 텀블러를 끼고 주머니를 펼치는 어르신! 지난 겨울 담요를 나누어드렸던 주머니를 보관했다가 대체식 가방으로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경로식당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여두기가 무섭게 바로 밑에 매달아둔 쇼핑백에 깨끗한 비닐봉투가 한가득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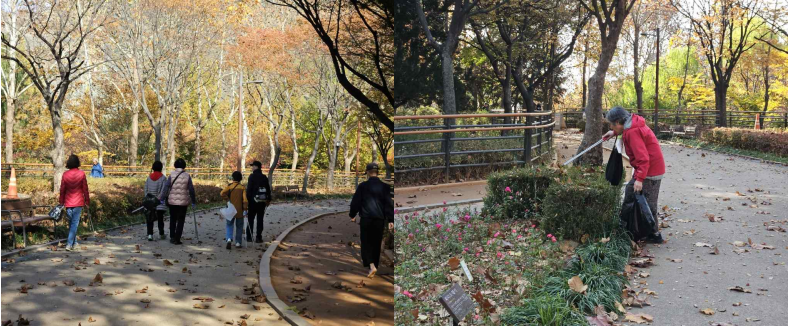
“좋은 생각이야. 식당에서 우리 비닐 항상 쓰잖아.”

“그래, 거기다 고기 뼈 버리면 되겠네.”

“비닐 내가 내일 또 한 보따리 갖고 올게요!”



하나둘씩 가져와 주시니 비닐봉투가 벽면 한쪽에 쌓일 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퇴식구를 운영할 때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비닐을 차근차근 접고, 이를 담아둘 보관함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뼈나 생선 가시를 담기에 크기가 작은 비닐봉투는 게시판 앞 쇼핑백에 넣어두니, 대체식을 가져갈 때는 물론이고 어르신들에게 비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무르익어 용마폭포공원의 경치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오후 시간 날씨도 즐기면서 공원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회동을 해보자 여쭙니 총 6명의 어르신이 한데 모였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신승자, 최돈남, 김삼순, 조정금, 유병석 어르신 그리고 안전지킴이로 일하시는 이은필 어르신까지 공원으로 나서는 발걸음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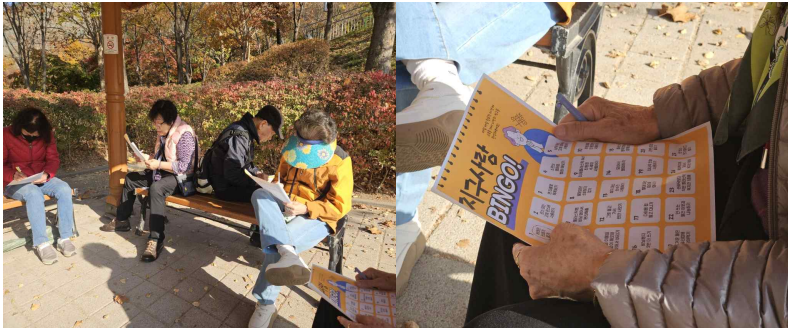


‘한번 쓴 비닐봉투 다시 쓰기’로 모아주신 비닐봉투를 하나씩 챙겨서 공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의 열정 가득한 눈! 나무 사이에 숨겨서 버린 쓰레기까지 찾아냅니다. 한바탕 쓰레기 줍기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정자에 모였습니다. 요구르트를 한 잔씩 하면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주차장에 담배꽂초가 많더라고요. 나무 뒤에 후미진 데를 봐야지. 그런 데에 쓰레기가 있어.”

“맞아요. 벤치 아래 사탕 먹고 버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한 바퀴 걸으면서 줍기 좋네요! 집에만 있기 힘든데 이렇게 나오니 보람차고. 다음에 또 해요!”



지구사랑 빙고판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평소 나의 환경실천에 대해서도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은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에 붙여두고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샴푸바가 뭐래요?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

“고체로 된 샴푸인데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반 샴푸보다 훨씬 친환경적이예요~ 두피에도 좋고요.”

“이런 건 어디서 사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건 중화역 앞에 보탬상점이 있어요.”

이날 참여했던 신승자 어르신은 샴푸바 이야기를 듣고 보탬상점에 직접 방문해서 사오셨습니다. 상점에 가보니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1월 생신잔치에서 공원 줄기 소감을 발표할 만큼 이날의 경험이 어르신께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공원 산책 겸 쓰레기 줄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경로식당에 출결 시스템 전원을 키기 위해서 2층에 내려간 아침, 박현순 어르신이 담당자를 부릅니다.

“선생님, 여기 좀 와봐. 우리 자랑할 것 있어.”

“네, 어르신. 어떤 거예요?”

“종이컵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스텐컵으로 다 바꿨어. 봐봐.”

우리 경로식당에는 11시 식사 전 출입문 앞 테이블에 삼삼오오 앉아 차를 나누어 마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은 믹스커피, 어느 날은 울무차, 또 다른 날은 직접 끓인 건강차를 돌아가면서 나누어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려는 마음에 종이컵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사랑’ 캠페인 내용을 계속 접하고 담당자의 고민을 듣고 난 후 박현순 어르신이 나서서 개인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한 것이었습니다.



“경로식당 전용 컵을 만든다고 해서 되진 않아. 관리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내가 이 컵을 어디서 판다고 알려주고 몸 불편한 분들한테는 저기 시장 가서 사다 주기도 하고 그랬지.”

“이게 좋아~ 따뜻하게 잘 마실 수 있고 손잡이도 편해.”

“우리 다 바꿨어요. 이제 여기다가 먹으면 돼.”



조금씩 변화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정리해서 올해 마지막 경로식당 전체회의에서 사진을 보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일상에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우리 식당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경로식당 어르신들의 지구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살맛나는 우리동네, '면목 4동 이음가게'

이음이의 블로그 운영기

허준호

함께한 사람들



살맛나는 면목 4동을 만드는 복지 1팀 리더! **윤지영 팀장**

면목 4동 이음가게 소통 채널! 이음가게 담당 **허준호 대리**

샘터공원 재활용 옷 뜨개 선생님 **양지현 사회복지사**

놀고 싶은 아이들의 언니, 누나가 되어주는 **강주영 사회복지사**

여름학기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하며 면목 4동 발로 뚫

김경아 / 김민주 / 장예빈 실습 선생님

살맛나는 면목 4동 이음가게 탐방기

| 면목 4동에 어떤 이음가게가 있나요?

면목 4동 용마산역 부근부터 면곡시장을 가기 전 부근까지 상점을 이용하다 보면, 액자가 하나 눈에 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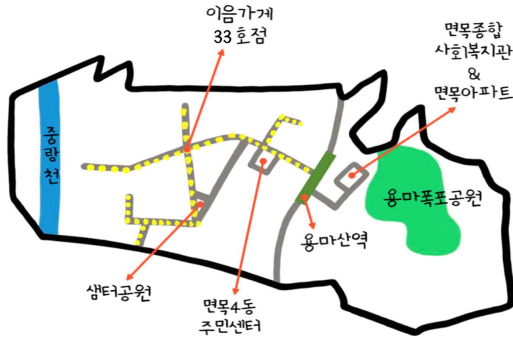


(우리동네 이음가게를 알리는 액자 현판)

2024년을 기점으로 면목 4동에 33개의 이음가게가 발굴되어 사장님들과 함께 만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과 복지관을 이어주는 곳’, ‘여러 복지 정보와 소식들을 함께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곳’,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관심 갖는 곳’, ‘우리 지역에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에 함께 동참하는 곳’, ‘지역에 필

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나서는 곳' 등 이음가게마다 함께 하는 역할이 다양합니다.

면목4동



(면목 4동 이음가게 위치 현황표)

면목 4동 이음가게와 함께 살맛나는 면목 4동을 만드는데 여러 활동을 이어가던 중, 사회복지사들에게 고민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음가게 사장님들끼리 만나기는 어려울까요?”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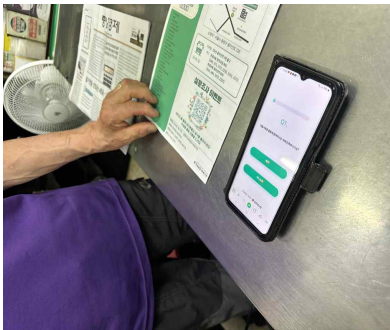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상점,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그렇게 우리 동네 이음가게 사장님들과 소통하는 방법, 활동을 알리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홍보물 비치, 아이들 간식 후원 모두 이음가게 덕분)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인데 우리도 한번
스마트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블로그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음가게 사장님들과 SNS나 문자, 연락으로 소통을 많이 나누지만
때에 따라 소통을 못나누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방문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기가 어려웠
습니다. 고민 끝에 접근성도 좋고 쉽게 볼 수 있는 블로그로 우리
동네 이음가게 소식들을 알려보기로 하였습니다.

| 이음가게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야지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 면목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네이버 아이디를 개설하고 처음 블로그3)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우리동네 이음가게 소개 페이지)

이음가게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우리 동네 33개의 이음가게를 한곳 한곳 소개하는 내용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블로그에 이음가게 주소를 넣으면 검색 포털에서 이음가게 상호명을 검색하면 이음가게와 함께 활동한 내용들이 보일 수 있다고 하여 어색하지만 이음가게들을 따로 소개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이야기라고 하면 어색할 수 있으니 활동명은 면목동 '이음이'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면목동의 한 주민과 같이 활동하며 내용을 적는 듯 블로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네O버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myeonmok_e_um/223365784666)

| 이음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 #1 소미경 생활 한복점

이음가게 참여 안내와 홍보를 다니던 중, 이음 31호점 ‘소미경 한복 전문’ 대표님을 만나 축제 소개도 드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함께 참여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다 5월에 팝업스토어 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와! 좋은 소식이에요! 이번에 축제 때 홍보를 좀 도와줄게요”

“저희도 새롭게 블로그를 시작하려는데 대표님 소식을 적어봐도 될까요? 사진도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블로그라니 새로운데요? 저희도 고맙지요~”



대표님께 센터공원 제 2회 'ㅋㅋㅋ복놀이터' 설명 중인 이음이

소미경 생활 한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음가게를 소개하기 첫 시작한 모습, 아직은 어색하지만 천천히 마음을 담았습니다.

| 이음가게 소개로 여기는 어때요? #2 34호점 해늘당

예빈 실습 선생님이 여름학기 실습을 마치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인턴십으로 인연을 더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면목 4동 함께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이음가게 블로그 같이 써보면 어떨까 제안하여 블로그 작성에 더욱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음가게 중에 34호점 해늘당에 다녀오며 글을 써봐도 될까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소개해봐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인터뷰도 한 번 해보고 싶어요(웃음)”

“좋은 생각이예요. 다녀와 볼 수 있겠어요?(네)”



말면 앞수쪽 공간만 부분이 남아 이음이가 직접 해늘당을 찾아가서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사장님, 이음가게를 위해 도전, 이음,가 있습니다?”

“주변의 이음가게를 지원하는 사장님과 친화적인 분위기 코치는 없던데도 개인적으로 음료 후원을 시작하다가 복지관 선생님들께 제안을 받아 이음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음가게를 진행하는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면서 크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음료 후원을 진행하다가 복지관 선생님들께 제안을 받아 이음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이음가게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며 이음가게를 망설이는 사장님들께 전하는 메시지로 “망설일게 없어요. 후원을 하며 받게 되는 좋은 에너지를 느끼고 작지만 계속하다 보면 윤택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는 응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좋은 소식은 알려보자! #3 12호점 피자스쿨 용마산역점

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어느 날, 복지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보니 면목 4동 이음가게 12호점 ‘피자스쿨 용마산역점’ 사장님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다녀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아, 겨울이잖아. 가져가서 쓰라고 핫팩 준비해놨어요. 가져가도록 준비해두었으니까 되면 얼른 다녀가요”

“세상에, 네네 바로 갈게요!”



예전 같으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추억 속에 남겨둘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면목 4동 이음가게 블로그에 얼른 옮겨다 적어 뜻깊은 나눔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 블로그 운영기 비하인드 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소식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도 함께 담아 글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면목 4동 샴터공원에서 있었던 제 2회 복놀이터 진행 소식도 공유하고 2023년 마을 활동 실천 기록집 '면목, 마을에 살다'를 여름학기 사회복지 실습 선생님들과 함께 마을 신문으로 엮어 배포하는 과정도 담았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발로 뛰며 사장님들 찾아 뵙는 이음이(사회복지사)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아휴 블로그 쓰려면 쉽지 않을텐데 괜찮아요?”

“매번 이렇게 애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고마워요”

블로그를 작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무엇보다 이음가게 소식을 잘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하였고 시간을 내어 글로 풀어내는 과정도 한 몫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음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하는 과정을 글 속에 잘 녹여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과 노고에 대한 손길 아닐까 돌아봅니다.

 샬숙

복지관 쌤들 진짜 너무 열심히십니다
덕분에 어깨가 으쓱 합니다!
너무도 더운날 많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조금 도와줍니다
해마다 하는 ㅋㅋ 놀이축제 아이들도 많이 참여해서 여러가지 경험도 하고 준비한 간식도 먹고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

2024.6.20. 14:42 신고

답글

♡ 2

 **이음** 이음이의 면목복지관 블로그주인

면목동 센터공원에서 즐거운 활동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힘이 되고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늘 웃음꽃 피어나는 우리 동네 기대가 됩니다!

2024.6.26. 13:56 신고

답글

♡ 1

 tisdmitjd1

무더운 날씨에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다고 소식들었어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2024.6.20. 15:11 신고

답글

♡ 2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격려와 마음 댓글)

오늘도 격려에 힘입어 면목 4동 복지 1팀 ‘이음이(사회복지사)’는 이음가게와 함께 주민들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이음이 파이팅! 면목 4동 이음가게 사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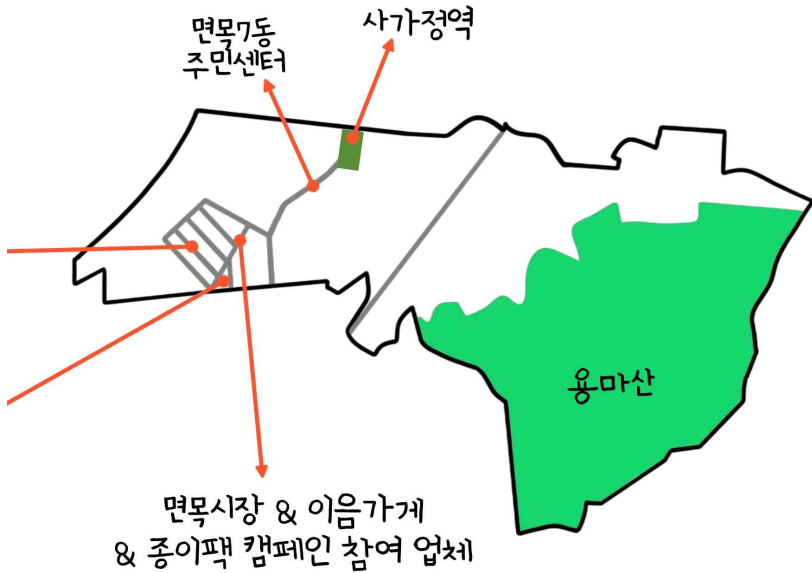
면목7동

아동 줍깅 골목



오거리공원(아동, 어르신 정기활동 & 동네 축제)





오거리공원 어르신 정기 활동

나무 밑을 지키는 그녀들

이주영

함께한 사람들



올 출석한 귀여운 **김종엽** 어르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쁜 **서분남** 어르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석은순** 어르신

흥이 넘치는 **안유분** 어르신

베푸는 것을 잘하는, 음식이 고우신 **정재금** 어르신

그 외에 함께 한 수많은 그녀들

(김택수, 박영애, 김성이, 김원화, 최순자, 장경숙, 엄옥남, 설복녀, 장동화, 조숙자, 석배례, 김길자, 주방순, 최명자, 이종례, 배정숙, 김영옥, 장종길, 양경화, 장중기)

오거리공원 어르신 정기 활동

| 어색한 첫 만남

담당자가 바뀌고 처음 어르신들을 뵈러 가는 날,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낯을 가리시며 조금 거리는 두시는 듯했습니다. ‘아..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건강체조도 준비하고, 음악에 맞춰 신체 인지 활동도 했는데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텐션을 더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만나다 보니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 가면서 첫날 느꼈던 거리감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 핸드벨 연주 “두 개의 작은 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과 핸드벨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그리 재능이 있지 않아서 악보를 만들거나 코드를 바꾸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교육을 들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코드 바꾸는 법, 어르신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색깔이나 숫자를 사용한 악보를 만드는 것 등 실제 모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곡 선정과 악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

치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맞는 곡을 선정하여 악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윤희주의 ‘두 개의 작은 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1번, 2번, 3번 그룹을 나눠서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차례가 아닌 곳에서 악기를 치다가 점점 자신이 연주할 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벨을 칠 수 있는 구간만 짧게 연습하다가, 그 다음은 핸드벨 안치는 곳에서는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은 다시 핸드벨 치는 구간으로 와서 핸드벨을 치다가, 그 다음에는 노래 부르는 구간에서 마라카스를 연주하기까지 단계별로 점점 성장했습니다.



안유분 어르신은 “우리 잘한다. 연주회 해도 되겠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진짜 되겠는데.”라면서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연주를 할수록 힘이 맞아갔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진짜 잘한 거 같아.”라고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축제 때 그동안 영상으로 찍어 두었던 것으로 랜선 연주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대면 연주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 내 손바닥, 옆 사람 손바닥 ‘짜꿍 박수’

어떻게 하면 옆 사람과 좀 더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와서 하는 활동이 없어져도 어르신들이 서로 계속 친하게, 즐겁게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다가, ‘짜꿍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았고, 성공했을 때 뿌듯함도 컸습니다.

“자, 왼손을 아래에 두고, 오른손을 들어 보세요. 오른손으로 내 왼쪽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 손바닥을 치세요. 내 손바닥, 옆 사람 손바닥. 내 손바닥, 옆 사람 손바닥” 이것이 구호가 되어 천천히 박수를 쳐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서툴렀고, 박자도 틀리고, 방향이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호호호” 그냥 신나 하고 즐거워

하는 모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실력이 늘어나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도 거뜬히 짝꿍 박수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옆 사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모임의 또 다른 시그니처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속으로 웃으며 생각해 봅니다.

|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은 항상 오거리공원에 나옵니다.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옆에 있는 정자 밑으로 한 명씩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둘러앉아 에그쉐이커를 흔들어 봅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도 김종엽, 서분남 어르신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깔고 앉아.”라면서 엉덩이 젖을까 봐 가지고 있는 박스와 전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조금씩 빗방울이 굵어지자 우산을 펴니다. 저와 예진쌤도 어르신이 씌워주는 우산 밑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안부를 물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낭만 있는 가을날이었습니다.

한바탕 싸라기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내려가서 더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김종엽 어르신은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신 자리를 옮겨 햇빛이 잘 드는 중앙으로 나와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에이, 날도 추운데 오늘은 그냥 가. 나도 들어가려고 했어.”라고 어르신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 간단하게 건강 박수라도

치면서 몸에 열을 만들어 보자고 하자 좋다고 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옆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습니다. 점점 큰 원이 만들어져 갑니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좋네. 사람들 계속 오면서 늘어나네.”라고 하며 귀여운 웃음을 짓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어르신들이 앉은 곳에 햇빛이 든 것처럼 마음에도 환한 빛이 비추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겨울날이었습니다.

| 12월 마지막 모임

마지막 모임을 앞두고 복지관에서 따뜻한 등글레차를 보온병 두 개에 한가득 우려서 담아왔습니다. 어르신들과 구수하고 따뜻한 등글레차를 나눠 마시면서 올해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지.”,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아서 감사하지.”

어르신들에게는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석은순 어르신이 얼마 전에 넘어져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들으니 더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고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모임 때 등글레차를 나누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더

자주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준비한 활동하기에만 너무 급급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덥다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음료도 나눠 주시고, 겨울에는 호떡이나 봉어빵도 사주셨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녹차나 미숫가루 타서 가지고 나올 걸’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마음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거리공원 아동 정기 활동

동네를 누비는 깨김이

권수민

함께한 사람들



기록과 정리는 나에게 맡겨라! 명실상부 오거리지킴이 **김아은** 아동
톡톡 튀는 생각과 표현으로 즐거움을 주는 **김지안** 아동
고마운 일을 기억하고 보답하며 친구들을 보살피는 **이예서** 아동
붕어빵과 짜배기를 세상 맛있게 먹고 점프도 잘하는 **김예솔** 아동
웃긴 표정의 달인, 하지만 활동할 땐 누구보다 진지한 **이소예** 아동

동네를 지키는 재밌는 활동

| 삼겹살 축구 줍깅!

작년까지 오거리공원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주제를 좀 더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동네를 사랑하기!’ 그러다 보면 환경도, 이웃도, 내가 사는 곳이니까 더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니까 너무 진지하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고 마음먹습니다. 목청을 킁킁 가다듬고, 어렸을 때처럼 엄지 손가락을 척 올리며 외쳤습니다. “여기 붙어라~!” 손가락 탐이 쌓여가는 게 간단하지만 게임처럼 재밌습니다. 줍깅 시작 전에는 구호도 외칩니다. 저마다 외치고 싶은 단어를 하나씩 모아 외칩니다. “삼겹살 축구 줍깅!!!”



| 동네를 아끼는 놀이

줍깅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없을까? 아이들과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동네에 전하는 것이 오히려 이웃 관계를 해치는 일은 아닐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환경 분필로 빗물받이(하수구)에 메시지를 적는 키트를 발견했습니다. 빗물받이에 담배꽂초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동물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키트입니다.

색색깔 분필로 동네 바닥에 메시지를 전하는 건 신기하고도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바닥에 낙서하는 경험이 흔치 않은 경험인 만큼, 아이들도 신이 나서 거리를 종이처럼 칠해갔습니다.





인증샷도 필수입니다. 주운 쓰레기를 모은 사진과 깨끗해진 바닥에 발을 모아 찍은 사진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줍깅을 할 때 아이들과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치지 않게 집게는 위로 들지 않기’와 ‘만나는 어른들께 인사하기’입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낙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혹시 누가 좋지 않게 볼까 걱정도 했지만, 활동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건네니, 모두 웃으면서 예뻐해주셨습니다. “기특하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인사합니다.

바닥에 실컷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그곳을 지나가면 눈에 띄게 담배꽂초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우리에게겐 큰 성취입니다. 야호!

| 동네와 친해지는 놀이

환경놀이를 할 때도 아이들이 동네와 친해지길 바랐습니다. 큰 종이에 면목7동 지도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그려 넣었습니다. 학교, 다이소, 놀이터 등입니다. 병뚜껑 알까기 시작! “학교는 내가 갈 거야!”, “난 다이소에 갈래!” 복지관도 그려 넣었지만, 아이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지관도 중요하니까요~ 이참에 어디에 있는지 잘 알려줬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그림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축제 장소를 꾸미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신나게 놀자!’는 마음으로 활동을 준비했는데, 아이들도 즐거웠을까? 싶었던 어느 날, 한 아이가 활동 마지막에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도 노는 거 또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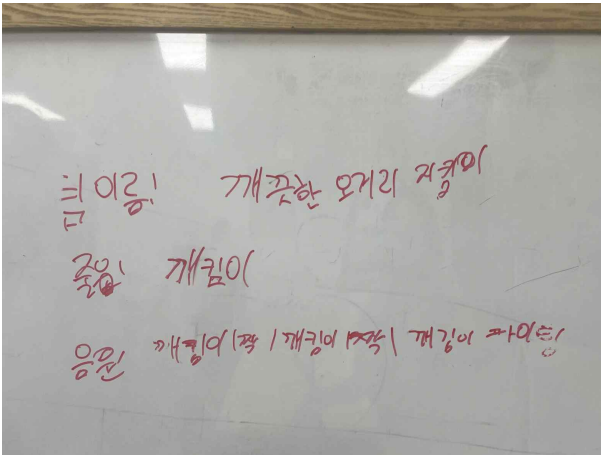


반짝반짝, 깨킴이

| 최정예 멤버로 깨킴이가 결성되다

하반기에는 정기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아은이와 지안이, 그리고 올해 처음 만난 예서, 소예, 예술이가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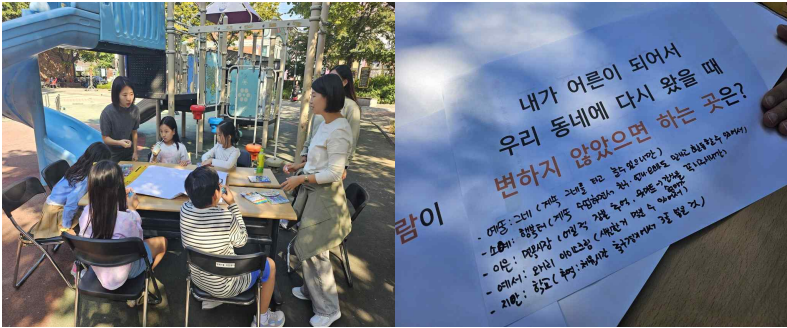
‘그동안 굿 활동을 하면서 어땠어?’,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가 되면 좋겠어?’ 질문을 하며 나온 키워드로 모임 이름을 투표로 정했습니다. ‘깨끗이’와 ‘지킴이’가 막상막하일 때 지안이가 “깨킴이!”하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오거리 지킴이’를 줄인 말! 찰떡같죠?



즐임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다며 아은이가 칠판에 뜻을 풀어 적습니다. 언니, 오빠가 정해진 이름에 맞게 예서, 소예, 예솔이가 신나게 뛰며 외칩니다. “깨킴이! 깨킴이!”

|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야?

팀 이름, 구호, 주제를 정하며 결속력을 다진 후, 깨킴이와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어른이 되어서 다시 우리 동네에 왔을 때,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깨킴이가 말한 소중한 장소는 놀이터의 그네, 친구와 언니 오빠를 만나 활동할 수 있는 행복터, 장도 보고 간식도 사먹을 수 있는 면목시장, 아이스크림 가게, 추억이 많은 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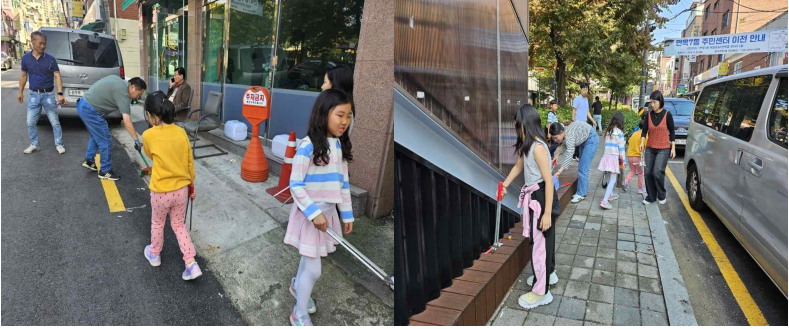
“우리가 그곳을 잘 가꿔보자!”



깨킴이가 말한 장소를 함께 다녔습니다. 청소하며 장소의 전후 모습을 그림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오거리공원을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그려 붙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오거리공원부터 정돈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행복터 벽, 놀이터의 놀이 기구들, 공원 앞 거리, 시장, 학교를 쓱싹쓱싹 청소했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근처 어른들이 함께 청소를 도와주시기도 했고, 행복터 벽의 낙서는 주민센터에서 말끔하게 지워주셨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덕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들이 하나 둘씩 더해져 갑니다.

| 우리 동네의 감사한 사람

깨킴이의 활동 규칙은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에 갈 때, 누구에게 인사드리고 싶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해늘당(카페)이요. 여름에 갔을 때 잘해주셔서요.”

“보안관 선생님이요. 우리 학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떡집 사장님이요. 저번에 요구르트 주셔서 저도 사탕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옆집 할머니요. 이번에 눈 왔을 때 눈을 쓸어주셨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르는 사람보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 한 번 본 사람보단 두 번 본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이웃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지난 마을활동 때 함께 본 주민들을 다시 떠올려 주어 감사했습니다.

연말인 만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 천사’가 되어보기로 합니다. 산타 모자를 쓰고, 사장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본으로 적어 연습합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지 논의하고, 순서를 정한 후, 마지막은 손 하트를 드리기로 합니다. 감사는 참 신기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함께 해준 아이들과, 활동을 적극 격려해 주신 어머님들께 감사 상장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동네를 누비는 동안 어머님들께 몰래 아이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적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면목7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주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오거리공원을 기분 좋은 웃음 소리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한 뼨 더 큰 예술이가 자랑스럽다.”

“밝고 웃는 예서의 모습을 보면 엄마는 힘이 난단다.”

깨김이를 향한 마음이 담긴 상장을 어머님과 함께 읽고, 어머님들께도 상장을 드립니다. 예술이가 제안해 준 바람개비를 접으며 포토존을 꾸미고 다같이 마무리 사진을 찍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깨김이!



삶의 지혜를 나누는

마을선생님

이에진

함께한 사람들



안전하게 재료 볶는 법 알려주신 **김성자** 어르신

야채 손질하는 법 알려주신 **김영숙** 어르신

맛있게 면 삶는 법 알려주신 **김종순** 어르신

깔끔하게 뒷정리 하는 법 알려주신 **박상옥** 어르신

햄버거 빵 노릇하게 굽는 법 알려주신 **유정남** 어르신

음식 양념하고 간 보는 법 알려주신 **탁순화** 어르신

마을선생님께 요리를 배워요

| 작년에 해보니 어떠셨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마을선생님 모임을 올해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남녀노소 인기가 좋은 주제인 ‘요리’를 매개로 마을에서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참 매력적인 활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마을선생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싶어 먼저 만났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담당자가 마을선생님 모임으로 연락드렸을 때 어떠셨는지 여쭙자 “작년에 했던 거니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랑 정이 들었으니 올해 또 해야지!” 하시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기대감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애들이 서투려도 알려주니까 하는 모습이 기특하잖아요~”, “마을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 해주겠다고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예뻐!”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요리를 알려주는 선생님의 역할도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규칙도 정했습니다. “누구는 집에 있는 재료를 가져오고, 누구는 사와야 하니까 모임 때 같이 장을 보고

똑같이 금액을 나누면 어떨까요? 그냥 제 생각인데, 다들 어떨지 모르겠네요.” 탁순화 어머님께서 먼저 조심스레 주신 의견을 시작으로 다른 어르신께서도 의견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총 여섯 명이니 까 세 명씩 돌아가면서 장 보면 되겠어요”, “준비 모임으로 따로 모이기보다 활동 마치고 그 자리에서 정하는 건 어때요? 아이들에게 어떤 요리를 배우고 싶은지도 물어볼 수 있구요~”, “만들고 남은 음식은 따로 챙기지 말고, 똑같이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어요. 누구 하나 마음 상하지 않게요~”

하나, 둘 서로의 의견이 합하여 마을선생님 활동의 체계가 잡힙니다. 어르신의 의견으로 잡힌 체계 안에서 올해 마을선생님 활동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 가고 싶은 모임, 마을선생님

마을선생님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에 함께했던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 대부분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 일정도 함께 바뀌어 다시 새롭게 참여 아동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오거리공원에 붙인 홍보지와 홈페이지에 올린 마을선생님 활동 글을 통해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채현이와 채아는 마을선생님 활동이 진행되는 시간에 태권도 학원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대신 마을선생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형 진오와 함께했던 동생 동오는 이번엔 친구 우혁이와 함께 새롭게 참여했고, 하은이와 세아는 학원을 마치자마자 마을선생님 활동을 하러 공유주방 장소로 와주었습니다. 마을선생님께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활동은 아이들에게 재미있어서 가고 싶고, 기대가 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잡채 만들기 활동으로 처음 만나는 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하게 된 하리를 보자 김영숙 어르신은 “작년에 우리 쿠키 짝꿍이었잖아~ 아이고, 반가워라!” 하시며 밝은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작년에 활동을 마무리하며 하리가 만든 쿠키와 편지 선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햄버거 만들기 활동을 하는 날에는 김종순 어르신이 크게 넘어져 다치신

바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나 너무 아쉬워요. 그 날만 기다렸는데... 애들 보고 싶어서 어떡해~ 다음번엔 꼭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쉬움 가득한 김종순 어르신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짜장면 만들기 활동을 하는 날, 유정남 어르신이 남기신 한마디를 통해 마을선생님 모임의 매력이 단박에 정리됩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덕분에 옷잖아~ 혼자 있으니까 옷을 일이 뭐 있어. 여기 오니까 옷는 거지. 그래서 난 마을선생님이 좋아!”

| 함께해서 더 즐거운 마을선생님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어머, 너 싱겁다는 말도 알아?”, “말을 참 잘한다니까! 너무 기특해~” 음식을 만들며 빠질 수 없는 간 보기! 잡채 양념하는 법을 배우며 맛을 본 여섯 살 동오의 싱겁다는 맛 표현에 마을선생님은 까르르 웃습니다. 마을선생님의 칭찬을 듬뿍 받은 동오도 배시시 웃어 보입니다.

특제소스를 바른 빵에 양배추, 당근, 토마토, 떡갈비, 치즈를 올려 완성하는 음식, 바로 햄버거입니다. 아이들이 재료를 쌓아 올리며 햄버거를 만드는 동안 마을선생님이 취향을 담아 주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야채 안 좋아해서 조금만 넣은 거야~? 선생님은 야채 듬뿍 들어간 걸 좋아해~ 좀 더 넣어줘!” 서로의 입맛도 헤아려보게 되는 마

을선생님 활동입니다.

마을선생님께 재미있게 요리를 배우면서도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변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소란스럽다 느끼진 않으셨는지 마을선생님께 여쭙었습니다. “정신이 없긴 했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 애들이 말을 참 잘 듣는 거야.”, “맞아~ 그 나이 땀다 그러면서 크는 거니까 괜찮아!” 마을선생님은 놀면서 배우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대신, 마을선생님으로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뛰면 안 되고, 알려주시는 것에 잘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 감사인사로 마무리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마을선생님이 설거지를 하시며 주방 뒷정리를 해주시는 동안 아이들은 식탁을 정리하고, 식기류를 함께 정리했

습니다. 마지막 모임 날에는 그동안 맛있는 요리를 알려주신 마을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드를 직접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요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데 김치만두 굽는 것을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바닥만 한 카드에 적힌 손글씨에 아이들의 진심이 푹푹 담겼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편지를 읽어드리자 “손녀같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너희들 덕분에 선생님도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동안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우린 내년에 또 만나요~” 하시며 마을선생님의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인사로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기쁘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면목7동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해뜰날

이주영

함께한 사람들



주변을 살뜰히 챙기는, 노래를 너무나 사랑하는 권수연 어르신
투덜거리지만 마음이 깊고 따뜻한 김원화 어르신
노래를 엄청 잘하는 화끈한 김한선 어르신
대화를 딱딱 정리해주는 목소리가 매력적인 박영순 어르신
위트가 넘쳐서 대화할 때 유쾌한 유정남 어르신
조용히 묵묵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막내 이성예 어르신
재주 많은 귀여운 큰언니 장동화 어르신
열정과 의지가 넘치는 장미자 어르신
흥부자 정(情)부자 장정자 어르신
항상 일등으로 도착하는, 웃음소리가 호탕한 최타순 어르신

해뜰날 모임

| 화요일이 왔단다, 화요일 왔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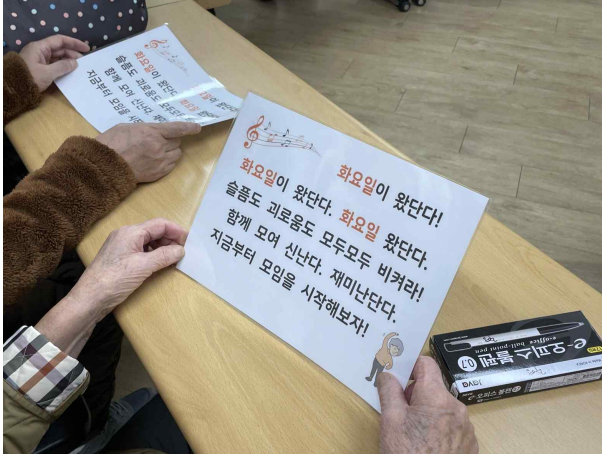
3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서 어르신도 새롭고 낯설고, 담당자인 저도 긴장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흥 많고, 정 많은 면목7동 어르신들은 저에게 금방 마음을 내주었고 모든 반응을 잘 해주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시작 전에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뜰날’을 개사해서 모임 송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사만 봐도 무슨 노래인지 알겠네. 가사 너무 잘 바꿨네, 화요일 절대 안 잊어버리겠어, 따라 부르기도 쉽고 너무 좋고, 신난다. 우리 모임 교가네 교가야!”라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에 “야! 하고 기합을 넣으면 좋겠어.”라고 좋은 의견도 해주었습니다.

모임 안내 전화를 하다가 모임의 이름이 없어서 오거리 공원에서 만났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다 보니 이름을 하나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좀 밝은 이름이면 좋겠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나 오늘 ___모임

에 간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 이름 정하는 건 너무 좋다.”

여러 의견 중에 직접 손들도 이름 정하기 투표를 했습니다. 두구두 구두구! 장미자 어르신이 의견을 낸 ‘해뜰날’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화요일마다 만나는 해뜰날 모임이 되었습니다.



| 떡 케이크와 함께 하는 생신 잔치

올해부터는 모임에서 분기별로 생신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선물과 간식을 준비하기로 해서, 면목 시장 안에 있는 이음가게에서 생신 선물을 구입 하고자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떤 선물이 갖고 싶은지 묻고, 이음가게에 가서 선물을 고르시도록 했습니다.

첫 생신 잔치 때 장정자, 장동화 어르신이 “우리 생일이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라면서 생신 선물 쿠폰을 떡집에서 사용하고 추가 금액을 조금 보태어 떡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뿐만 아니라 떡 자를 칼, 장갑, 접시 등도 세심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르신이 모임을 얼마나 애정하고 있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생신 잔치는 떡 케이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생신 쿠폰을 사용해서 떡 케이크를 맞추고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순서는 생일자에게 덕담과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일 너무 축하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요.

우리 계속 만날 수 있게 꼭 건강해야 해요.” 등등 서로를 향한 기분 좋은 말들이 오고 가며 따뜻함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두 번의 나들이

우리들의 첫 나들이는 따뜻한 봄날에 ‘나들이 공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서로 나눠 먹을 간식 조금씩 준비해서 만나는 거 어때요?”라고 제안했는데 모두 흔쾌히 좋다고 해서 소풍 가듯이 간식을 준비해 오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나들이 날! 정자에 앉아서 간식을 펼쳤는데 진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삶은 계란, 과일, 떡, 과자, 닭강정, 빵, 음료수’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간식들이 줄줄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가 ‘하하 호호 깔깔깔’ 웃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간식을 먹은 이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나 어제 설레서 잠도 못 잤잖아. 진짜 너무 즐겁고 좋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할 수 있으니 행복하다. 우리 진짜

소풍 온 거 같아서 어렸을 때로 돌아간 거 같네.”라며 어르신들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나들이는 화랑대철도공원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부터 비 소식이 100%로 예정되어 있어서 결국 나들이는 취소하고 맛있는 점심 한 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점심 메뉴도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했습니다. 점심을 어디서 뭘 먹으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몸보신을 할 수 있는 추어탕, 갈비탕 이런 것은 어떤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중국집! 면목7동에 맛있고 유명한 중국집이 있다면서 메뉴도 다양해서 원하는 것을 골고루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몸보신 할 수 있는 음식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당일, 중국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다가 권수연 어르신이 “우리 비와도 그냥 놀러 가면 안 돼? 우산 쓰고 걸으면 되지. 언제 또 가겠어. 그냥 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 격

하게 동의하면서 즉흥적으로 화랑대 철도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차타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언제 좋지요? 가자고 하길 잘했지?”라면서 다들 엄청 좋아했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까지 틀고 따라 부르며 신난 어르신들을 보니 비가 무슨 대수인지 떠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해서 우산 쓰고 단체 사진도 한 장 남기고, 내부 전시관에서 옛 철도역의 모습도 구경하면서 추억 여행도 했습니다. “여기 처음 와 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네. 여기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신나 하는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 우리들만의 노래방

상반기 마지막 모임 때 어르신들이 “우리 다음에는 노래방 한번 해요.”라고 의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첫 모임은 ‘우리들만의

노래방'으로 꾸려졌습니다.

진짜 한 명도 안 빼고 전부 마이크 들고 원하는 노래를 아주 맛깔나게, 신나게 불러 줬습니다. 옆에서 장정자 어르신은 “난 노래에는 영 소질이 없어. 대신 춤 열심히 출게.”라면서 정말 한시도 쉬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어르신들도 일어나서 춤추며 숨겨놨던 흥을 폭발시켰습니다.



노래하기 쑥스러워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내가 같이 불러 줄게. 뭐 부를래?”라면서 함께 해주고, “내가 옆에서 춤 취출게 같이 하자.”라면서 함께 해주기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동화 어르신도 일어나서 리듬에 몸을 맡기고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우리 오늘 올나이트 하자!” 모이면 즐거운 해뜰날 모입니다.



|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짝 동네친구

어르신들은 모이면서 짝 동네친구가 되었습니다. 권수연 어르신은 “내가 장미자 형님, 최타순 형님, 김원화 형님 챙길게. 내가 전화해서 내일 모임 있다고 말할 테니까 전화 따로 안 해도 돼. 복지관에도 같이 모시고 올라갈게.”라고 하면서 형님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장정자 어르신은 “장동화 언니는 못 온대. 내가 대신 가져다줄게. 하나 더 챙겨줘.”라며 챙기거나 “내가 구르마 올려다줄게.”라면서 챙깁니다. 모임으로 서로 알게 되어 장미자 어르신과 함께 주중에 종종 수다 떨러 자주 장동화 어르신 댁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박영순, 이성예 어르신도 이 모임으로 친해졌습니다. 올해 9월에 박영순 어르신이 양쪽 무릎 수술을 해서 한동안 모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1월에 조금씩 걷는 운동도 필요하고,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해뜰날 모임 시간을 기억했다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성예 어르신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가 붙잡고 가도 돼? 같이 가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팔짱을 꼭 끼고 같이 오고 갑니다.

유정남 어르신도 박영순 어르신이 수술 후에 나오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물으면서 “사골 끓여서 먹어. 먹기 싫어도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야.”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순 어르신이 기운도 없기도 했고, 귀찮다고 하니 “나한테라도 말하지. 내가 끓여줄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정남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원래 친했던 사람 말고는 서로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는데 마지막 모임 때 보니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미자 어르신이 “우리 진짜 동네친구잖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한선 어르신도 “나 맨날 면목7동 동창생 만나러 간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었어,” 이제는 정말 동네에서 편하게 만나고 안부를 물으며 인사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해뜰날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스러운 도그 모임

사도그

이에진

함께한 사람들



윙크, 충성 똑똑한 개인기 부자 해송이 엄마 **김영자**님
쿵쿵 냄새 맡으며 늘 반갑게 인사하는 두리 엄마 **김점덕**님
여전히 아기 같은 18살 꼬마와 호기심 천국 벤 아빠 **김홍일**님
면목동에서 제일가는 매력 강아지 달래 엄마 **백옥순**님
듬직한 큰오빠 방울이와 에너지이저 여름이 엄마 **엄혜정**님
검은콩 같은 두 눈과 코가 사랑스러운 쿵이 엄마 **이미수**님

사랑스러운 도그 모임

| 반려견이라는 주제로 모이다

면목아파트 단지와 용마폭포공원을 다니다 보면 반려견과 산책 중인 동네 어르신을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돌보는 어르신과 모임으로 만나면 즐겁게 소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 같고,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 같은 반려견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을 모임에서 나뉘보면 어떨까요? 서로 엇비슷한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면서 활력을 주고받는 이웃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일자리와 경로식당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르신께 모임에 대해 안내했고, 총 6명의 어르신이 모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날, 어르신들은 당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복지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아지 유모차, 배변 패드, 강아지 장난감, 물그릇 등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 복지관 프로그램 실에 놓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놈 참 귀엽네!”, “어서 와! 우리 두리는 일찍부터 와 가지고 냄새 맡고,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있었어.”, “애 먹일라고 닭가슴살 삶은 것 좀 가져왔는데, 좀 나눠줄게요~” 이전에 알던 사이도, 처음 보는 사이도

있었지만 ‘반려견’이라는 공통 주제가 있으니 금세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모였으니 사람만 인사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당신의 반려견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우리 달래는 여자앤데 이제 두 살 됐어요”, “벤은 진순이(암컷 진돗개)예요. 이제 14개월 됐지요. 하얀 애는 꼬마인데 18살이에요.” 반려견을 소개하는 어르신의 얼굴에는 사랑과 애정으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용마폭포공원 산책, 수제 간식이나 반려견 용품 만들기 같은 특별활동도 해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나 반려견 돌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웃 관계를 맺어보자고 말씀드리며 다음 모임을 약속했습니다.



| 개 모임? 사도그 모임!

용마폭포공원에서 가진 두 번째 모임 날, “아까 누가 어디 가냐길래 그냥 달래 모임 간다고 했어. 뭘 달래 모임이 다 있냐고 그러더라고!” 백옥순 어머니의 말씀을 시작으로 모임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의논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더 잘 알잖아! 한번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담당자가 혼자 정한 이름보다 어르신이 함께 의논하여 직접 정한 이름이 모임의 의미를 더욱 잘 담아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각자 반려견의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쭙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 모임이니까 ‘개’나 ‘강아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입에 잘 붙는 부드러운 이름이 좋지!”,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강사모는 입에 잘 안 붙는 거 같아!”

어르신과의 의논 끝에 ‘사랑스러운 도그(Dog)’라는 말을 줄여 ‘사도그’로 모임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누가 어디가냐 하면 사도그 모임 간다고 해야겠네. 사도그가 뭐냐고 물으면 ‘사랑스러운 도그! 개 모임이지. 그것도 모르냐!’ 해야지~” 재치 있는 백옥순 어르신만의 마디에 사도그 어르신들이 깔깔 웃습니다.

| 사도그,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우리

용마폭포공원에 돛자리 펴고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는 한 때, 엄혜정 어르신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엄혜정 어르신의 반려견 여름이와 김영자 어르신의 반려견 해송이는 원래 동네에서 만나면 서로 짖으며 어색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그 모임으로 함께하게 되면서부터는 만나도 짖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들도 지들이 사도그라는 걸 아나 봐!”, “이렇게 만나면서 금세 또 친해진 거지~”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온기를 강아지들도 똑같이 느꼈던 걸까요? 사람도, 강아지도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돕는 사도그의 매력입니다.



하루는 복지관에서 반려견을 위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양말목을 엮어가며 방울을 만들어 목걸이로 완성했습니다. 김점덕 어르신은 일찍이 두리의 목걸이를 완성하신 후 “우리 벨라 것도 만들어줘야 쓰겠네~” 하시며 양말목을 다시 엮기 시작하셨습니다. 벨라는 김점덕 어르신 따님 댁 보더콜리인데, 어르신 댁에 종종 놀러 온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영자 어르신이 도왔습니다. “내가 방울 하나 만들어줄게. 이거 하나는 사도고 김영자 아줌마가 만들어 준 거라고 벨라한테 꼭 얘기해줘~ 알았지?” 김점덕 어르신께서 하하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유, 김영자 씨한테 사진 찍어 보내줘야겠네~”



김홍일 님은 18살 푸들 꼬마와 1살 진돗개 벤 두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꼬마는 김홍일 님과 용마산 정상까지 거뜬히 등반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병도 생기고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휘청휘청 걸으면서도 홍일 님이 주는 간식을 받아먹는 꼬마를 쓰다듬으며 “그래도 여전히 제 눈에는 아기에요” 하시는 목소리에 사랑이 듬뿍 담겼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김영자 어르신께서 말씀하십니다. “꼬마가 나이 들어서 눈도 안 보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안됐잖아. 우리 해송이 나 이 드는 것도 난 상상이 안 되거든.” 반려견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맞이하게 될 반려견과의 이별, 그로 인한 아픔과 상실감에 대해서도 서로 토닥이며 보듬어 줄 수 있는 다정한 사도그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면목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중간에 함께하게 된 이미수 어르신은 예전에 복지관 뜨개질 모임으로도 인연이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역시 손재주가 좋으셔서 능숙한 솜씨로 반려견 수제 간식을 만드셨습니다. 사도그 모임으로 함께 해보니 어떠셨는지 문자 씩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재미있지! 그럼 안 재미있겠어?” 옆에 계시던 김홍일 님도 한 마디 거드십니다. “사도그 모임이 기다려져요.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좋죠.”



| 동물농장 출연까지?! 자랑스러운 사도그

사도그 모임으로 닭가슴살이나 두부, 채소를 활용해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수제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모여 앉아 조물조물 반죽하고, 노릇하게 익히면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이야기, 동네 샵에서 강아지 미용한 이야기, 예쁜 강아지 옷 싸게 파는 곳 등등 이야기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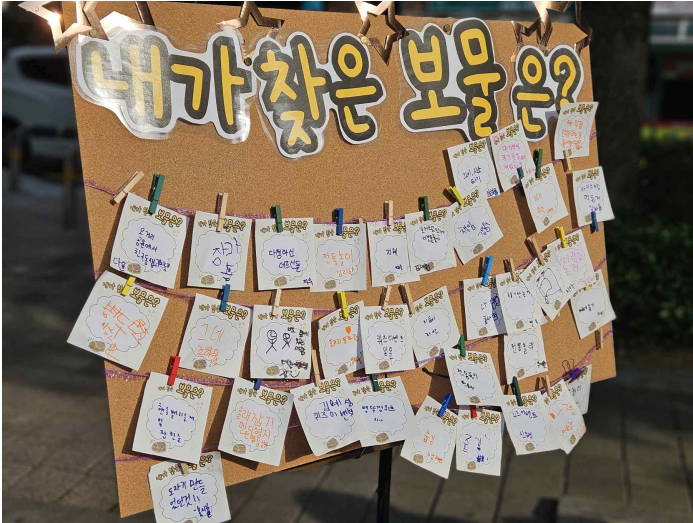
하루는 김영자 어르신이 모임에서 만든 수제 간식을 몽실이에게 나눠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몽실이는 용마폭포공원에 떠도는 주인 없는 강아지인데, 사람이 다 떠난 공원에 홀로 남은 몽실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밤낮으로 해송이 산책할 겸 꼭 들러 살피신다고 합니다. 몽실이가 워낙 유명해서 TV 동물농장에서까지 촬영하러 왔다고 하시더니, 시간이 흘러 TV에서 질투하는 해송이를 뒤로하고 몽실이에게 간식을 나눠주시는 김영자 어르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화면이었지만, 김홍일님과 엄혜정 어르신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 사도그 너무 좋은 모임이네! 우리 동네도 참 좋은 동네야. TV에 나왔다고 동네 방네 알려야겠어!” 복지관에 모여서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는데 백옥순 어르신이 무척 자랑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우리 모임, 사도그입니다.

오거리공원 상반기 동네 축제

오거리공원에서 보물찾기

권수민 이주영

함께한 사람들



연주를 들려 줄게 맞춰봐~ 핸드벨 리듬게임 부스 정기활동 어르신
남녀노소 실뜨기 배틀 시작! 실뜨기 부스 마을선생님
동네의 보물을 나눠주신 이음가게
우리들의 추억을 상영하고 퀴즈 맞추기!오거리공원 영화관
& 책 퀴즈 부스 정기활동 아동

함께한 추억을 우리만 알 수는 없지!

| 그동안 찾았던 보물을 나눠드려요.

2024년 6월, 어느새 한 해가 절반이 지나고, 그만큼의 추억도 쌓여 갑니다. 그 추억들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오거리공원을 누비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살기 좋은 동네’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작년 활동을 기록한 책 <면목, 마을에 살다>의 내용과 올해 마을 활동 내용을 축제 형식으로 풀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보물을 이렇게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 어르신, 아동과 함께 축제 준비

아이들과 함께 할 거리를 고민하다가, 축제 장소를 직접 꾸며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스 간판을 한 글자씩 색칠해 보자!

어르신들도 간판 만들기에 동참하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니, “줘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시며 조금은 시크한 표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나 이런 거 잘 못

하는데...”하시며 망설이셨던 분은, 막상 색연필을 드리니, 원하는 색을 신중히 골라 정성스럽게 색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알록달록한 간판에는 각자의 개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간판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아이들은 신나서 높이 뛰어오르며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은 활동 영상을 상영할 ‘오거리 영화관’의 매표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일에 푹 빠져서 다른 준비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매표소로 쓰일 큰 상자에 너도 나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영화 캐릭터와 팝콘 그림을 그려 매표소에 붙였습니다. 벌써 영화관이 하나 생긴 것 같이 설레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 오거리공원 어르신들의 새로운 시도

<면목, 마을에 살다> 책 속에는 어르신들의 핸드벨 연주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번 축제에서는 핸드벨을 활용한 부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직접 연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핸드벨 실력은 날로 늘고 계시지만, 자리를 옮기기도 쉽지 않으시고, 아이들이 올 때마다 핸드벨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대신 영상으로 그 마음을 담아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핸드벨을 하나씩 들고 찍은 사진으로 연주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에 맞춰 색깔 핸드벨을 찾아 연주해보고, 어떤 곡인지 맞추는 ‘핸드벨 리듬게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르신들의 사진을 예쁘게 찍었습니다. “잘 나왔어?”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자신 있게 답할 정도로 핸드벨을 든 어르신들의 미소가 환합니다.



축제 당일에는 일찍 와서 어르신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비록 축제 부스에서 함께 자리하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어르신들의 즐거움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거리공원에서 보물 찾을 사람?

| 책 속에서 보물 찾기

책 <면목, 마을에 살다>에는 오거리공원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오거리공원 어르신들의 체조와 핸드벨 연주, 마을선생님들의 지혜 나눔, 아이들의 환경 실천 활동, 종이팩 캠페인까지!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활동들입니다. 각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고, 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도 책 속의 활동을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동네의 보물을 함께 발견하길 바랍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책을 함께 읽어야겠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주 큰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퀴즈를 내고 맞춰보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거리공원 활동은 무슨 요일에 진행될까

요?”, “마을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고 퀴즈를 맞추는 이 시간은 무진이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축제 활동을 도와온 무진이는 이제 능숙하게 역할을 맡아 축제를 진행합니다.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오면, 하나하나 페이지를 펼쳐서 도와주고, 또래 친구들이 오면 시크하게 안내합니다. 맞춤형 안내로 친구들에게 완벽하게 활동을 소개하는 무진이!



아이들이 활동한 내용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활동 영상이 상영되는 오거리영화관'도 준비했습니다. 영화관의 인기 상영작은 물론 우리들의 활동입니다! 영상 속에 자신이 등장하는 걸 아는 아이들이 일찍부터 와서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마을 활동에 함께 했던 아이들이 등장하자, 어머님들은 “와 이거 00이가 한 거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응원 속에서 아이들은 더욱 기뻐합니다.

| 책 속 주인공이 되어보기

오거리공원에 울려 퍼지는 땡땡땡 핸드벨 소리! 아이들이 항상 기
웃기웃할 정도로 궁금한 활동입니다. 오늘 축제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어르신들이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
자 몇몇 아이들이 말합니다. “저 이 할머니 저기서 봤어요!”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할머니가 드신 핸드벨과 똑같은 색깔의
종을 들고, 아이들도 함께 올려봅니다. “이 노래 뭐지?” 처음에는 조
금 아리송하지만, 점점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춰 연주하다 보면, “아!
이 노래!” 하며 짜릿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할머니들이 연주하셨던
노래가 이런 거야~”하고 슬쩍 자랑합니다. 어르신들의 연주 소리에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더해져 공원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책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마을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실뜨기 놀이는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
했습니다. 마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고학년 친구는 저

학년 동생에게 알려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실뜨기 경쟁을 벌입니다. 다들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눈에 불을 켜고 실뜨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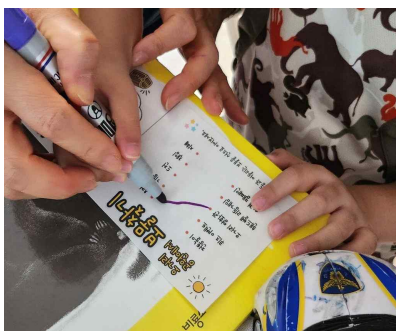


| 오거리공원에서 내가 찾은 보물은?

모든 부스를 다 돌고 나면, 오늘 축제에서 찾은 보물을 적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감을 적어 보는 이 코너는 하리가 맡아주었습니다. 하리는 동네에 아는 언니, 동생들이 많고 2개 국어를 할 수 있어서 누가 오든지 걱정 없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 담긴 의미와 참여 방법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거리영화관에서는 ‘추억’을 마을선생님의 실뜨기 놀이에서는 ‘지혜’를 환경캠페인에서는 ‘책임’을 책 속 퀴즈 맞추기는 ‘도전’을 어르신들의 핸드벨 리듬게임에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각 활동에서 찾은 보물들을 선으로 하나씩 연결해 가며 적어 갔습니다.



☀️ **오거리 공원에서 보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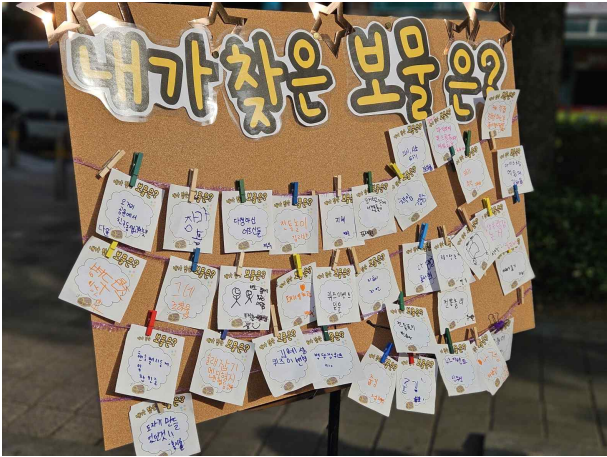
진통놀이 ●	추억 ●
퀴즈 이벤트 ●	기쁨 ●
오거리 영화관 ●	도전 ●
핸드벨 리듬게임 ●	책임 ●
환경 캠페인 ●	지혜 ●

활동과 어울리는 보물을 선으로 이어보세요. 🌟🌟🌟

“다정하신 어르신들”, “내가 직접 축제 부스에서 방법을 알려준 것”, “친구들과 즐겁한 것”, “오거리공원에서 함께한 모든 것!” 아이들이 적어준 보물들은 하나하나 소중한고,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아이들은 상품으로 보석바 구매권을 받았습니다. 면목시장에 있는 이음가게 ‘조은꽃아이스크림’에서 사장님이 보석바로 바꿔주십니다. 보물을 찾은 아이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구매권을 들고 사장님을 찾아가면, 센스있는 사장님이 이렇게 안내해주셨다고 합니다. “애들아 여기 아이스크림 통에서 보물을 찾아봐~”

또 다른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다음에는 면목시장에서 보물찾기를 해야 할까 싶습니다.



오거리공원 하반기 동네 축제

정을 나누고 환경을 살리는 면목7동

최영주 권수민 이주영 이예진

함께한 사람들



주민자치회 환경봉사분과

백미애 분과장, 강재희 총무, 윤정숙/손광헌/최수연/이명애 위원님

오거리공원 어르신 김종엽, 서분남, 석은순, 안유분, 김길자, 석배례

오거리공원 '깨킴이' 김아은, 김예솔, 김지안, 이소예, 이에서

마을선생님 박윤희, 권필자, 김종순, 유정남

이음가게 오거리정육점, 시루원떡집, 수제생닭강, 간지네과일, 조은꽃아이

스크림, 쌍둥이반찬

면목7동 축제 구상하기

| 모여라 면목 7동!

상반기 마을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우리 동네 면목7동을 아끼는 사람이 동네 구석구석에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동네를 살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데 모으는 축제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며 만난 오거리공원 어르신들, 아이들, 이음가게, 주민자치회 환경봉사분과와 지역 봉사단체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해 노력한 것과, 동네 환경을 살리기 위해 애쓴 것들을 생각하며 축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새로운 관계의 시작, 환경봉사분과

2024년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구성으로 새롭게 조직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환경봉사분과에서 분과원, 2023년에는 총무로서 활동하면서 면목7동 지역주민들을 만나며 분과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해왔습니다.

2024년은 새로운 주민들과 새로운 구성을 마친 주민자치회와 새로

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분과원을 신청하기 위해 자치회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복지관에서 축제할 때 같이 해도 좋겠다는 제안을 들었고,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하반기 축제와 환경봉사분과 사업의 콜라보를 위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오거리공원 어르신들이 축제를 위해 움직이실까?

오거리공원 경로당 앞 정자에는 언제나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십니다. 어르신들과는 2022년부터 건강체조와 핸드벨 연주 등을 함께 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 후, 복지관 축제에도 참여하셨고, 축제에 전시될 작품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들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자 자리가 어르신들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라서 몇 발짝만 움직이면 버스를 운영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늘 앉아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정자가 공원 끝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두세 분 정도는 축제가 진행되는 공원 중간 자리로 와서 작품을 구경하거나, 실내 공간 ‘행복터’에서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어르신은 정자에서 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환경을 살리는 역할로 무엇을 부탁드립니다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작품을 부탁드립니다? 그림과 글 말고도 어르신들이 나누실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을까? 그러던 중, 어르신들이 평소 잘 나누시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서로 음식을 나누시잖아요~ 축제에 오시는 분들께 간식을 나눠 드리는 역할을 맡아 보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은 아이스크림, 떡, 과자, 채소 등 다양한 음식을 서로 나누시곤 했습니다. 모임 시작 전에 나눠 드시고 계속해서 모임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때로는 한창 체조하는 중에 누군가 간식을 사오셔서 체조가 중단될 때도 있었습니다. ‘축제에 오는 분들께 음식을 나눠줘 보시면 어때요?’라는 제안은 어르신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잘 설명하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 이음가게 사장님과 함께해볼 수 있을까?

면목시장에 있는 이음가게는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늘 북적북적합니다. 덕분에 사람 사는 정겨운 냄새가 느껴진다는 커다란 매력이 있는 면목시장이지만, 가게 사장님과 길게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물건을 보러 온 손님과 사장님의 장사 일에 불편이나 피해를 드리게 되는 것도 매우 곤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이웃들과 잘 나누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복지2팀의 고민과 회의 끝에 ‘똑똑 이음가게’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똑똑 이음가게는 동네 이웃집을 찾아가 말을 건네고 사탕을 받아오는 서양의 핼러윈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사장님의 역할은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이 사탕을 가지고 가게에 방문하여 인사 말을 전하면, 잘 듣고 인사를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드린 사탕은 찾아온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실 수 있도록 두어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동네의 정을 계속해서 느껴보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 ‘깨킴이’도 빠질 수 없지!

오거리공원 정기활동으로 만나는 ‘깨킴이(깨끗하게 오거리공원을 지키자)’ 아이들의 활동도 잘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 줍깅을 하며 동네 환경을 살리고, 활동 때마다 동네 어른들께 인사하며 정을 나누려 했던 아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동네 곳곳에 퍼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면목7동 축제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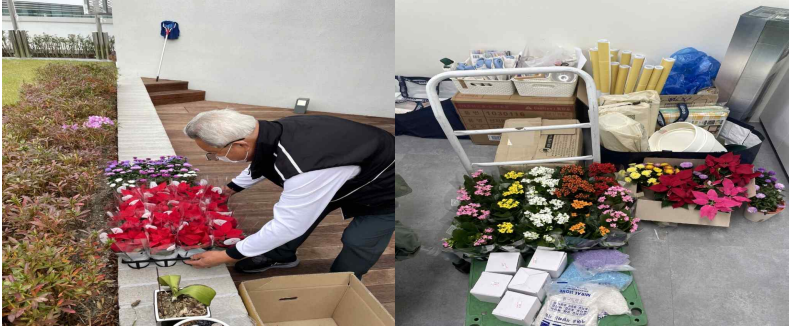
| 정을 나누고, 환경을 살리는 면목7동, 어떻게 잘 보여줄까?

축제의 각 부스는 주제에 맞게 주민들의 강점과 역할을 살려 구성했습니다.

‘음식으로 나누는 정’을 담당하실 오거리공원 어르신들, ‘동네를 깨끗하게 지키는 정’은 깨김이 어린이들과, 환경봉사분과의 활동, 복지관의 우유팩 분리수거 활동, ‘인사로 나누는 정’은 이음가게, ‘동네를 돌보는 정’은 면목7동의 새마을부녀회, 사가정봉사회, 행복나누리협의체, 효사랑봉사회, 7동아동위원회 활동과 복지관의 고립청년지원사업을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환경, 인사, 돌봄 등 각자 방식과 영역은 다르지만 면목7동을 사랑하는 저마다의 모습임을 축제를 준비하며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환경봉사분과, 각자의 강점과 관계의 힘을 살리다!

환경봉사분과에서는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며 잘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한 후, 백미애 분과장을 필두로 축제를 위한 준비를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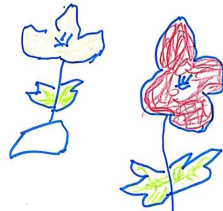
| 오거리공원 어르신과 함께한 축제 준비

정기활동 어르신들이 이번 축제에서는 축제 당일에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서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정을 나누시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음식으로 나누는 정’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음료에 붙일 라벨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색칠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봐서 이제는 어르신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정’이라는 키워드로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글씨도 쓰면서 각자 만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잘하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어서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하나 안 한다고 하거나 못하겠다고 빠지 않고 각자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만목 7동 소리터



정 이 안 어 호
석 은 순

CamScanner로 스캔함

어르신들의 개성이 가득 담긴 그림을 스캔해서 스티커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200개가 넘는 음료에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라벨을 붙이니 주스가 더 특별하게 보이는 마법! 더 맛있어 보이고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 찜나게 느껴지는 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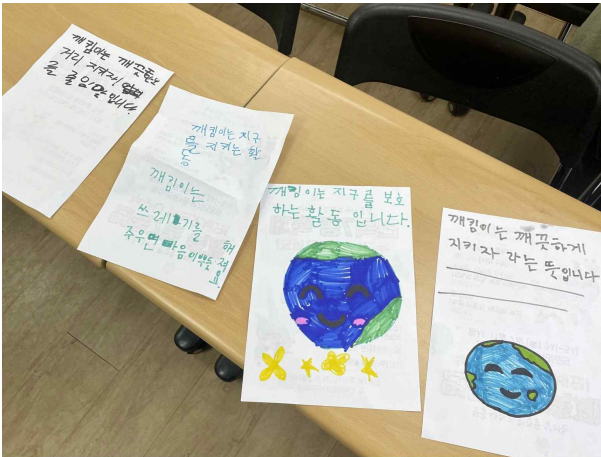
라벨 만들기 후에 어르신들에게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지. 해보지.”라며 어르신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오거리공원 아동 '깨킴이'와 함께하는 축제 준비

'깨킴이'는 '깨끗하게 오거리공원을 지키자'의 줄임말로, 아이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아이들이 동네를 아끼기 위해 그간 너무나도 잘해 온 활동을 축제의 자리에서 더 널리 퍼트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축제 당일 내내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활동 소개 영상을 틀어두기로 했습니다.

'깨킴이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깨킴이를 하면 뭐가 좋나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 각자 답을 작성하고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대본일 뿐인데 방긋 웃는 지구의 모습도 그려 넣을 정도로 신경 써줘서 대본은 카메라에 보여주고, 내용은 외워서 촬영했습니다.



촬영 전 서로 질문하고 답할 때는 신이 나서 방방 뛰느라 영상 찍기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촬영이 시작되니 리본과 머리핀을 딱 꼽아 머리를 정돈하고,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깨킴이 활동의 유익함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이 나다가도 웬지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 이음가게와 함께한 축제 준비

정기 활동으로 면목7동을 방문한 목요일, 오거리공원 인근에 있는 이음가게 사장님께 ‘똑똑 이음가게’로 축제에 함께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었습니다. 축제 당일에 아이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공원을 벗어나 시장 안의 이음가게에 방문해야 하기에, 바쁜 시장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취지를 설명 드리자, 사장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장님들이 맡아주실 역할은, 방문한 아이들이 전하는 ‘다정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아이들이 전하는 ‘다정한 말(사탕)’을 모아 둘 바구니를 가게에 비치해 주시며, 바구니 속 ‘다정한 말(사탕)’을 오시는 손님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인사말은 상반기에 이음가게 사장님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나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오거리정육점, 시루원떡집, 수제생닭강정, 간지네과일, 조은꽃 아이스크림, 쌍둥이반찬까지! 무려 여섯 곳의 이음가게가 축제에 함께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오거리공원과 가까운 동네 곳곳의 가게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며 더욱 세밀하게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목7동 축제 시작!

| '동네를 깨끗하게 지키는 정' 부스① 환경봉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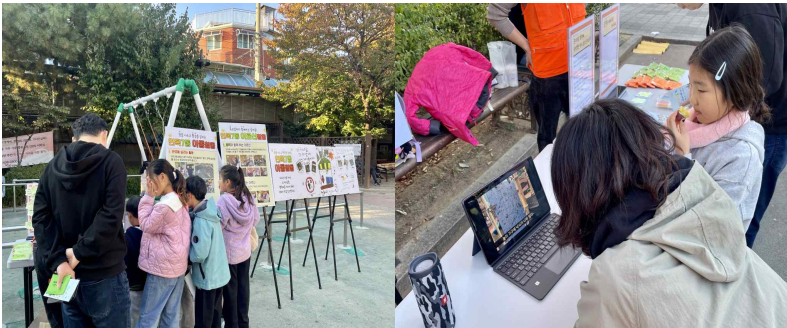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한 만큼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북적이는 주민들 속에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부스의 의미를 살리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오거리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분 만들기 부스는 축제 진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료 소진되었고 텀블러 백 색칠하기는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 수 있었고, 축제가 끝날 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프리마켓, 칼갈이도 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와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보면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부스들로 구성되어 운영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세세한 준비와 원활한 운영이 있었기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동네를 깨끗하게 지키는 정’ 부스② 깨킴이, 놀이부스

깨킴이 영상 속 깨킴이 구호와 주제가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깨킴이! 깨킴이!” 외치는 아이들 목소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구경하는 주민들께 아이들이 한 활동을 설명드렸습니다. 활동의 의미에 기특함을 느끼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귀엽고 발랄한 모습에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어! 저 애 알아요”, “OO이도 이 활동 하네?”하며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반가워합니다. 깨김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후다닥 달려 와서 동네를 아끼자는 자신들의 포스터와 완성된 영상을 봅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몇 번이고 ‘다시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부스는 음료수 컵을 재활용해 모빌을 만들거나, 컵을 쌓아 올리는 놀이였습니다. 단순한 활동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며 창의력있게 놀 수 있었습니다.

| '음식으로 나누는 정' 부스, 정기활동 어르신

축제 당일, 어디선가 나타난 동네 어르신들이 부스 현수막 다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해마다 축제를 할 때면 무심히 다가와 현수막을 달아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덕분에 오거리공원 가장자리에 있어 축제 주요 장소와는 조금 동떨어진 정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에게 역할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석은순, 김종엽, 서분남, 석배례, 김길자, 안유분 어르신이 음료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어르신들께 다가가면 바로 음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옆에 음료를 쌓아두었고, 어르신들은 각자 음료를 꺼내기 쉬운 방법을 터득해서 미리 세팅을 해두셨습니다. 자기 옆의 음료를 세팅하는 모습에서 축제에 대한 어르신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오니, 어르신들은 앉아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돌림판에서 본인 이름이 나오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김종엽 어르신, 손을 번쩍 드는 서분남 어르신, 앞으로 쏠살같이 나오는 김길자 어르신,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하면 건네주는 석은순, 안유분 어르신! 모두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뺄 수 있다고?’, ‘걸어서 나오신다고?’, ‘크게 대답하고 손을 번쩍 든다고?’, ‘화장실도 안가고 자리를 지키며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신다고?’, “이거 해보세요. 음료수 줘요.” 라면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많이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음료를 받으며 지역주민들도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어르신 감사합니다.”하면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눕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음료를 주면서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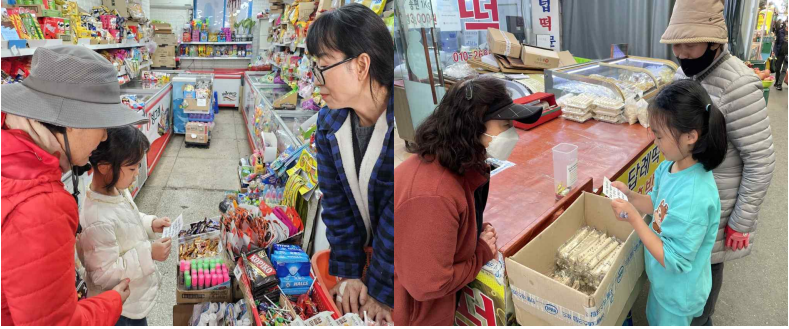


| '인사로 나누는 정' 부스, 푹푹 이음가게 출발!

축제 당일, 함께하기로 했던 이음가게 사장님께 사탕을 담은 통을 미리 전달하며 부스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따 오후에 축제 시작하면 사람들이 사탕 들고 인사하러 올 거예요. 한번 잘 받아주세요!” 이음가게 사장님은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가게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사탕 통을 놔주셨습니다.



오거리공원에서 총 6곳의 이음가게 중 어떤 곳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지 룰렛을 돌려 정했습니다. 룰렛으로 정해진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사장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문제없습니다. 사장님께 다가가기 조금 쑥스럽고 용기가 잘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선 미션에 동행해 주실 든든한 마을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친절한 사장님 덕에 정 많은 면목7동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대요!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사장님의 맛있는 음식 덕분에 면목7동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서로의 목소리로 정겨운 인사말을 주고받는 이 시간! 인사를 건네는 주민도, 인사를 받는 사장님도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함께하는 이웃과 더욱 가까움을 느끼고, 내가 사는 우리 동네가 참 정이 많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 ‘동네를 돌보는 정’ 부스

‘동네를 돌보는 정’ 부스에서는 우리 동네 봉사 단체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회 환경봉사분과 외에도 효사랑봉사회, 사가정봉사회, 행복나누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아동위원회 등에서 지역의 어르신, 아동,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두고 보니 면목7동을 사랑하는 주민이 참 많은 것 같아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활동 전시 외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정을 전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코스튬을 하고 오늘의 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사진 속에서, 오늘 하루 서로 간의 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신 덕분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 격려와 응원으로 마무리 한, 환경봉사분과

축제가 끝난 후 분과 카톡방에는 축제 때 찍은 사진과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다시 한번 고생한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반기에 새로 분과장을 맡게 되어 처음으로 마을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고생하신 백미애 분과장님,

항상 옆에서 분과장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정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시는 강재희 총무님,

따뜻하고 온화한 에너지 소유자 최수연 위원님,

청일점이자 든든한 손광현 위원님,


축제 당일 누구보다 바쁜 부스를 운영하셨음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주민들과 눈 마주치며 진행해주신 이명애 위원님,

육아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윤정숙 위원님,

뒤에서 항상 뒷받침해주신 이정옥 자치위원장님, 황금옥 사무장님, 면목7동주민센터 직원분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시간과 경험들이 쌓여져 가는 만큼 더 마을을 아끼고 이웃을 살필 수 있는 마음도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힘내서 따뜻한 면목7동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7동 이정옥 자치회장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 주임님
동직원분들 사무장님 총무님 분과
위원님 다적지 못함을
이해부탁드리며 모두모두
추운날씨에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더욱더 주민과
소통하고 하고 주민과 가까워지는듯
하여 흐뭇 뿌듯합니다♡고개속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 파이팅♡♡♡하세요^^

백미애 환경봉사분과장

오늘 정말정말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폭취세요~~^^

오후 6:27

최수연

분과장님 총무님
사무장님
손광현위원님
이명애위원님
고생많으셨어요~~~

| 어르신들의 소감, “재밌었어!”

어르신들과 축제 소감을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스케치북에 축제 사진을 크게 출력해서 붙였습니다. 축제 준비 과정부터 진행한 것들을 모으니 10장이 넘는 사진 자료가 되었습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처럼 어르신들 앞에서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다시 되살리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우수수 쏟아냅니다.

“내 이름 부르면 ‘네~!’ 대답하고 앞에 나와서 전해줬어. 너무 재미있었어.”

“나 엄청 잘 팔았어. 그날 많이 팔았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가는 사람도 많더라구.”

“다음에는 장사를 더 잘 해야겠어.”

어르신들은 다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재미난 것들을 함께 해볼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의 핸드벨 랜선 연주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부스 운영하시느라 제대로 보지 못해 따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여기 나 나온다. 우리 잘하네. 여기도 있네. 나는 언제 나와?”

라고 재잘재잘 이야기 나누며 영상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에 저도 뿌듯해졌습니다. 영상 만든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잘 기록해 준 팀원들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소감, “얼마나 기특해!”

축제를 마치고 ‘똑똑 이음가게’에 함께해주셨던 사장님께 방문하여 소감은 어떠셨는지, 어려운 것은 없으셨는지 여쭙었습니다.

“좋은 말을 나눠서 더 친밀하게 느껴졌어요. 요새 얼굴 보며 인사는 나누어도 좋은 말을 다 나누진 않으니까.”

“경험이 자산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번엔 쑥스러워 하면서 참여했어도 다음엔 분명 더 잘 하게 될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인사하는 것 어려워 하는데, 잘 하더라구. 얼마나 기특해!”



아이들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마음에 더해,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르신들이 오신 게 인상 깊었어. 보통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 시는데, 이런 날에 이런 특별한 활동도 해보고, 신선하더라고”

이번 ‘똑똑 이음가게’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어디서든 얻을 수 없는 경험의 자산을 얻는 데 사장님들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동네에서 서로 인사와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이음 가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 아이들의 감사 전하기

축제를 마치고 ‘깨김이’ 아이들은 이음가게 사장님들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우리 동네에 다시 왔을 때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장소’ 중 하나로 꼽힌 면목시장! 내가 자주 다니며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따뜻한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하반기 활동도 ‘감사’를 주제로 잡고 동네를 더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동네를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손길 보태주신 면목7동!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종이팩모아 캠페인

이에진

함께한 사람들



캠페인에 함께하며 다방면으로 애써주신 **다수의 참여 주민**
 마을에서 종이팩 캠페인이 잘 진행되도록 운영에 도움을 주신
노인사회활동 환경지킴이단 어르신
 종이팩모아 캠페인에 주민 봉사활동으로 함께해주신 **박신자, 연동석,
 김광한 선생님**
 환경과 이웃을 위해 종이팩을 기부해주신 **구워트렌, 루앙의 부영이,
 마음카페, 슬기로운 카페, 지니양과점, 해늘당 지역 상점 6곳**
 주민과 마을의 징검다리 **중랑마을지원센터와 거점 11곳**

더 많은 주민과 함께하다

| 새로운 카페와의 즐거운 동행

2022년부터 맥을 이어온 종이팩모아 캠페인은 올해도 지역주민과의 즐거운 동행을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종이팩을 올바르게 재활용하여 환경도 살리고, 적립 포인트로 이웃도 도울 수 있는, 1석 2조의 의미가 담긴 종이팩 캠페인! 올해는 더 많은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의 범위도 더 넓혀보고자 복지관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카페에 의미 있는 동행을 요청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 거죠? 그럼 다음 주부터 준비해 볼게요.”

“작년에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좋네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종이팩이 좋은 곳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일해볼게요!”

비록 사용한 종이팩을 가게 앞에 두면 시간 맞춰 챙겨가시는 어르신이가 있어 어렵겠다는 곳도 있었지만 슬기로운 카페와 해늘당, 마음카페가 새로운 동행 제안에 기꺼이 응해주셨습니다.

| 체계가 잡혀지는 종이팩 캠페인

매주 목요일은 종이팩 캠페인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아침 9시에는 복지관에 모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환경지킴이단 어르신과 종이팩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열렬한 관심과 참여 덕분에 복지관 1층에 위치한 종이팩 정거장이 가득 차는 데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르신, 10개씩 다 세시면 저에게 주세요.”, “10개씩 쉰 거 여기 있어요~” 200ml, 450ml, 900ml, 멸균팩 등 종이팩의 종류별로 개수를 세서 차곡차곡 상자에 담고 있다 보면 박현순 어르신이 어느새 강당 문을 활짝 열며 말씀하십니다. “1층에 바구니가 없길래 위에서 세고 있는가 했어. 고무줄 남은 거 있으면 나 줘!” 매번 종이팩 종류 별로 고무줄로 잘 묶어 모아주시는 박현순 어르신께 고무줄도 다시 전달합니다.

환경지킴이단 어르신과 종이팩을 다 정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양손 가득 종이팩을 들고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박신자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신자님은 루앙의 부영이와 마음카페에서 종이팩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모아주셔서 가져왔어요. 여기다 들게요.”

박신자님이 복지관 로비에 앉아 물 한 잔 마시며 잠시 쉬는데, 일지를 작성하러 내려온 노인사회활동 어르신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서로 동네 이웃 사이라고 합니다. “집 앞에서 보던 사람을 복지관에서 다시 보니께 반갑잖아~” 밝게 웃으시는 두 분의 미소도, 반가움에 덩석 마주 잡은 두 손도 정겹습니다.

박신자님이 다녀오시는 동네 카페 두 곳 외에 나머지 네 곳은 환경지킴이단 어르신이 방문해서 수거해 주고 계십니다. 해늘당과 슬기로운 카페는 이순덕, 윤금순 어르신이, 구워르텐과 지니양과점은 유정남, 유윤자 어르신이 맡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들어가도 되는가 싶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주 가다 보니까 익숙해요.”, “가게에 소금빵이라는 것이 있더라고! 요새 유행이라길래 같이 가는 언니랑 같이 사 먹어 봤지~” 카페는 어르신에게 익숙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종이팩 캠페인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경험도 해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웃으면서 카페를 찾아주시니까 저도 웃게 되고 좋았어요~” 카페 사장님도 어르신과 정을 나눈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동네에서 차곡차곡 모아 정리한 종이팩은 한살림 매장에 전달해 포인트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 매장에 종이팩을 전달하는 데에는 연동석, 김광한 선생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에 공감하며 애써주신 덕분에 기관에 모인 종이팩이 이웃을 돕는 포인트로 환산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힘

| 중량형 ESG 공모전 수상

어느 날 중량마을지원센터 조영옥 센터장님이 소식을 하나 전해 주셨습니다. 중량구청에서 한창 진행하고 있는 ESG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한 것이었는데, 면목복지관도 다방면에서 환경 캠페인으로 주민과 노력하고 있으니 도전해 보아도 좋겠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역에서 환경을 주제로 활동하며 주민의 관심과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종이팩을 따로 모으는 내용으로 지역주민과 캠페인을 진행한 것, 그리고 적립 포인트로 이웃까지 돕는다는 내용을 잘 담아내어 공모전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관의 종이팩모아 캠페인이 무려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종이팩 캠페인에 열렬히 참여하고 계신 권선주, 박현순, 박희우 어르신에게도 알렸습니다. “좋은 일이라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상도 받고 좋네!” 세 분과는 중량구청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도 동행했습니다. 비록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흐린 날이었지만, 멋있게 옷을 차려입은 어르신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에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 주민과 기쁨을 나누다

공모전 수상은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주민과 그 공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구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강남구 공감 그린스토리에서 기관방문 차 선물 받은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공모전에서 상금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았기에 이를 활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매번 물심양면으로 복지관을 도와 주시는 조은꽃 사장님께 추천을 받아 화분에 심을 식물을 구매했습니다. 정기활동으로 오거리공원에서 만나는 아이들과는 예쁘게 화분을 심어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는 카페에 미니 상장과 함께 전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화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조은꽃 사장님이 오거리공원까지 오셔서 화분 심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완성한 화분은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가게에 방문해 직접 전달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하계 실습생과 열정적으로 제작한 종이팩모아 캠페인 영상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우와, 화분이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언제 영상까지 만드셨어요?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모으고 계셨군요!” 사장님들께 매년 받기만 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이 놓인 화분과 상장을 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미 있는 캠페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종이팩모아 캠페인에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착한 가게가 있는 우리 동네도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성과를 돌아보며

| 참여주민 간담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종이팩모아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주민과 봉사자 모두 만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 종이팩 정거장에 종이팩을 모아 주신 분들과 주민 봉사자에게 간담회에 대해 안내 드리며 총 16분의 참여 주민과 간담회로 만났습니다. ESG 공모전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간담회 다과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팩모아 캠페인 영상을 보며 그동안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어떤 주민이 캠페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총 몇 개의 종이팩이 모였는지 나눴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함께한 덕에 이뤄낸 ESG 공모전 수상 소식까지 알리고 서로의 소감도 나누었습니다. 적립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기부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었습니다.



“이야, 우유팩이 6만 7천 개나 모인 거면 많이 모였네! 내년에는 10만 개 모아야지!”

“이제 어딜 가도 버려진 종이팩이 눈에 들어와요.”

“노인정에 가서 버려진 우유팩 있으면 얻어오고, 분리수거장에서도 주워와서 씻어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버려야 재활용이 되잖아요~”

“한부모 가정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라면이나 세제 같은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되라고요!”

캠페인 참여 주민의 적극적인 제안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내년 종이팩 캠페인의 목표가 정해지고,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팩 적립 포인트로 돕고 싶은 이웃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도 종량마을지원센터에서 협업기관과 만날 때 잘 전달해 보기로 했습니다.

| 중랑마을지원센터와 만나다

면목복지관의 종이팩모아 캠페인은 중랑마을지원센터 종이팩 착한 순환의 거점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내 여러 복지기관과 통장협의회, 센터가 거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적립 포인트 기부처를 결정하기 위해 함께 만났습니다. 총 11곳의 거점⁴⁾에서 힘을 합쳐 지금까지 모인 포인트는 총 703,676원으로, 종이팩 개수는 123,143개였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살펴보니 종이팩을 활용한 재생휴지 5,655개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되었고, 30년생 소나무 38그루를 심은 효과였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하여 어떤 분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처럼 녹색병원에 휴지를 기부하면 더 많은 분을 도울 수도 있고, 종이팩 재활용 휴지라는 환경적 의미도 전달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종합선물 세트처럼 생필품 꾸러미를 구성해서 푸짐하게 돕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살림매장에 좋은 유기농 제품들이 있으

4) 그물코협동조합,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중랑구NPO지원센터, 영안지역아동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망우마중마을활력소, 묵1동 통장협의회, 한살림동서울생협 신내매장

니까 좋겠더라고요.”

“생필품 꾸러미로 돕는다면 가정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정을 돕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 활발하게 오가면서 이번에는 다양하게 꾸러미를 구성하여 돕는 것으로 뜻이 모였습니다. 휴지와 즉석밥, 라면, 도시락김 등으로 식품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환경도 살리고, 또 다른 이웃을 도우면서 마을에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캠페인에 함께하는 주민분들에게 알리면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환경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 종이팩모아 캠페인은 2025년에도 지역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면목7동, 우리 동네를 돌보는 정(情)

최영주

함께한 사람들



오랫동안 면목7동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꾸려나가고 있는
행복나누리협의회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효사랑봉사회**

절기별 관내 아동들에게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아동위원회**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봉사경험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뭉친
새마을부녀회

2005년부터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가정봉사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면목7동 돌봄수호대! 봉사단체들을 소개합니다.

5개의 봉사단체는 면목7동주민센터와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사업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봉사단체의 강점을 살려 면목7동의 필요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는 봉사단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면목7동! 행복나누리협의회!

면목7동 행복나누리협의회

면목7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01 복지협의체**
 - 생활이 온누리상품권 나눔
 - 장제 결연후원 (지역내 청소년 4명, 월 25만원)
- 02 어버이날 나눔**
 - 지역 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총 20명, 5만원 상당 선물 전달
- 03 시원한 여름나기**
 - 물감지나눔
 - 지역 내 취약계층 100가구, 광복당 11개소 지원
 - 방학중 생자 및 고제: 14가구
- 04 무료 영화관람**
 - 저소득 독거어르신 150명 영화관람 (후원: 태원교회)
- 05 추석꾸러미나눔**
 - 생필품&식료품 꾸러미 지원
 -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어르신 50가구 지원

행복나누리협의회는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4명의 청소년가정에게 25만원씩 창제결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과 꾸러미를 구성하여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과 인정으로 함께 합니다. 그 외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갈비탕 선물

나눔, 사랑의 물김치 나눔, 어르신 가정에 방충망 설치도 진행했습

니다. 작년부터는 태은교회와 무료영화관람 사업도 진행하면서 면목7동 돌봄수호대로서 더 풍성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진다! 효사랑봉사회!

봉사활동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효사랑봉사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더 많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매월 60명의 어르신에게 생신잔치를 진행하며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으며, 관내 11곳의 경로당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이미용봉사, 목욕 쿠폰을 지원하며 일상에서의 돌봄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중랑구에서 가장 큰 축제인 장미축제 때 야외 사진촬영을 진행했으며 장수사진도 함께 촬영하여 액자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효사랑봉사회는 면목7동 어르신들의 돌봄수호대로서 어르신들과 더 가까이, 자주, 함께 소통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 아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는 아동위원회!



아동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책가방 및 선물 세트를 아이들에게 선물했으며 사회 첫발을 기념하며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가족 사진 촬영권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선물 꾸러미를 전달, 따뜻한 겨울맞이 속옷 나눔 사업을 지원하며 관내

아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였습니다. 아동위원회는 면목7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울타리인 가족도 함께 돌보는 든든한 돌봄수호대입니다.

| 베테랑 봉사자들로 뭉친 어벤져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매달 반찬, 식료품 꾸러미를 나누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목7동 어벤져스 돌봄수호대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외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며, 더 풍성한 나눔들로 행복한 면목7

등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새마을 부녀회, 항상 응원합니다.

면목7동 새마을 부녀회

복지사우지대 및 고독사가구 등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면목7동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매월 취약계층 30가구에 반찬, 식료품 꾸러미를 나누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함.

사가정봉사회

면목7동
사가정봉사회는 2005년부터
순댓국 나눔, 미용봉사, 공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면목7동 봉사단체입니다.

순댓국 나눔

올봄 어르신 등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하고자
매월 50명의 어르신께 순댓국 나눔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순댓국만큼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사가정봉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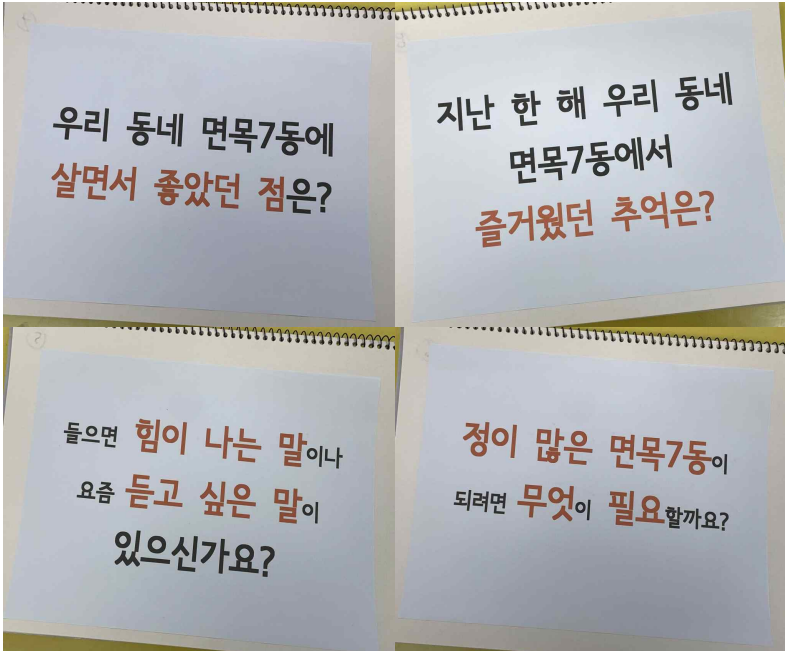
2005년부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나눔을 이어오고 있던 사가정봉사회가 금년부터는 면목7동주민센터, 복지관과 함께 매월 따뜻한 순댓국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항상 묵묵하게 면목7동에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사가정봉사회! 진정한 면목7동 돌봄수호대입니다.

‘정’이 많은 면목7동

이음가게 인터뷰

이예진

함께한 사람들



면목7동 이음가게 21곳

시루원떡집, 마음카페, 구워르텐, 쌍둥이반찬, 대성정육점,
지니양과점, 형제수산, 아플로헤어, 독일베이커리,
조은꽃/아이스크림, 이모네식당, 명궁떡집, 경신쌀상회,
오거리정육점, 주꾸미부대찌개, 수제생닭꼬치닭강정, 담양축산,
루앙의부엉이, 간지네과일, 엄마손반찬, 솜데이공방

‘정’이 많은 우리 동네 사장님 인터뷰

| 이음가게 사장님에게 묻다!

이웃 간의 정이 살아 있어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면목7동! 어떤 때 우리 동네가 가장 정겹게 느껴지는지, 정이 많은 우리 동네가 앞으로도 이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지, 이웃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정겨움을 느끼는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면목7동에서 장사를 하며 많은 이웃을 만나고 있는 이음가게 사장님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사장님들이 들려주신 정겨운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 나눔 릴레이로 느끼는 정

면목시장 초입에서 떡집을 하시며 다방면으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사장님께 여쭙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 써주시는 사장님을 잘 아는 분들은 지방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떡집을 하니까 떡을 나누면 김치가 돌아와. 근데 나는 먹는 김치가 있거든. 그래서 다시 나누면 뭐가 또 돌아와요. 서로 주고받으며 나눔이 이어 지니까 정도 같이 주고받게 되는 거지.”

| 웃음으로 느끼는 정

동네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오거리공원에 인접한 반찬 가게 사장님께 여쭙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웃을 때! 그리고 함께 웃을 때 정을 느끼지. 부모가 인사하면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다 따라 배우 거든.” 시장 초입에 있는 정육점 사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정을 나누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처음은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 정을 나누는 팔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면목시장의 딱 중간에 위치해서일까요? 이미 용 봉사활동으론 모자라 이젠 무료 급식소까지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커다란 통 큰 나눔과 정 때문일까요? 사장님의 미용실은 늘 손님으로 북적북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사실 수 있는지 여쭙자 사장님은 남몰래 비밀 이야기를 전하시듯 말씀하십니다. “팔자야, 팔자!”

| 마음을 울리는 꼬마 손님의 한마디

늘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반겨주시며 관심 가져주시는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께 여쭙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힘드시죠? 집에 가면 안 피곤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너무 감동 받았어요.” 동네 아이들을 향한 사장님의 따뜻한 관심을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서로 나누는 말로 사장님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 단골손님과 나누는 정, 그리고 재능기부

동네 어르신들의 팔구순 잔치를 위해 맛있는 반찬 후원해 주시는 반찬가게 사장님께 여쭙었습니다. “이 동네는 참 정이 많아. 손님들이 전혀 까탈스럽지가 않고 잘 기다려 주셔. 내가 너무 바빠 보이면 알겠다면서 알아서 계산하고 가는 단골손님도 있어!” 전공은 청소년 교육이지만, 여느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시는 작은 사장님께도 어떤 말을 들을 때 정을 느끼시는지 여쭙었습니다. “어제 맛있어서 또 사러 왔다는 말이나... 귀여우세요?” 곧이어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여줍니다. 과연 미소뿐일까요. 노래 공연이나 청소년 관련 재능기부 활동도 가능하니 복지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시며 든든한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

봉사단 활동을 하시며 반찬 나눔 활동 오래도록 이어오시는 사장님은 나눔 자체가 ‘힐링’이라고 합니다. “내가 면목동에 온 지도 벌써 24년이 되었더라고. 많이 바뀌었지! 면목동의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여유가 생긴 게 보여. 요 앞에 면목7동 청사 지어지는 걸 보는데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 그동안 장사하면서 받은 것이 많아서 다 나누고 싶어!”

면목3



까치공원



면동초등학교

녹색병원



3·8동 주민센터

사가정역



까치공원 인근 이음가게



8동



동명교회



소파공원



용마산



성심교회

사가정 시장 이음가게
& 복지상담소

사랑과 정이 넘치는

소파공원 건강체조

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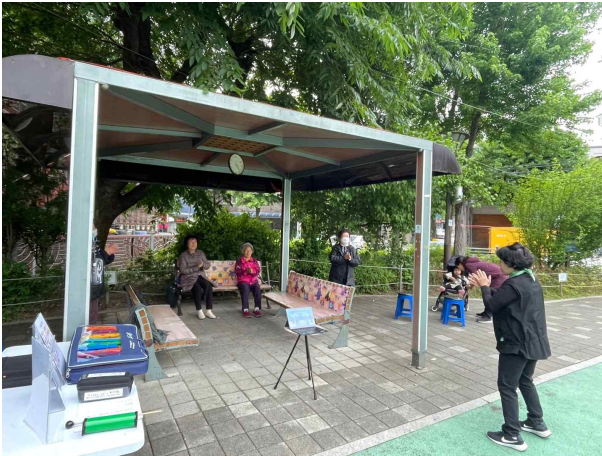
함께한 사람들



“반가워요~” 인사를 하며 이름마저 예쁜 꽃자 할머니 **이화자**
열정이 넘치는 막내 반장 **이명자**
요리를 똑딱 해오시는 만능 요리꾼 **강순자**
늘 밝은 미소로 환하게 인사해주시는 **한순단**
흥도 많고 덕도 많은 **정흥덕**
음악을 좋아하고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남양자**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긍정의 왕 **이복덕**
여리여리하고 여성미가 물씬 느껴지는 **양영숙**

정이 넘치는 소파공원 건강체조 모임

| 건강체조의 활력을 넣어주는 막내 반장



새로운 한 해가 되면서 그동안 체조를 도와주었던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좋았지만, 주민들이 꾸러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장을 어떻게 뽑을까 고민하다가 반장 한 명으로 뽑기엔 다들 부담스러워 할까봐 월별 반장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미리 종이를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월별로 반장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어르신들이 당황한 표정들이 보였

습니다. 그때 이명자 어르신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언니들~ 내가 막내니까 내가 할께! 춤은 잘 못 춰도 그냥 선생님 옆에서 흔들면 되잖아~”

“젊은 언니가 해주면 좋지~!”

“춤도 잘 추던데 잘 되었네~”

라며 칭찬을 해주십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먼저 나서주신 것에 감사하며 박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반장은 에너지가 넘치고 흥겨웠습니다. 앞에서 동작을 하면 모두가 즐겁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반장이 잘하네~!!” 칭찬이 오가며 체조시간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언니들을 잘 챙겨줍니다. 몸이 불편한 언니가 있다면 먼저 나서서 챙겨줍니다. 언니들도 동생의 마음을 알고 서로 더 챙겨주며 선한 마음은 돌고 돕니다. 소파공원 모임은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 모임은 새로운 주민들이 오면 먼저 살갑게 맞이해 줍니다.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다 보니, 이웃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모임이 되어갑니다.

| 공명실로폰으로 올려퍼진 멋진 하모니

건강체조가 끝나면 의자 앞에는 멋진 상이 펼쳐집니다. 각자 조금씩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다 보면 출출한 배도 든든해집니다. 이후에 담당자가 공명 실로폰 한 개씩 나눠주면 색깔에 맞춰서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고향의 봄’ 누구나 아는 노래이니 절로 노래가 나오고 노래에 맞춰 실로폰을 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처음 해보는데 재미있네.”

어르신들은 새로운 활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매달 2개씩 노래를 배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풍당풍당’, ‘섬마을 선생님’, ‘반달’ 등 다양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가요보다는 동요가 어르신들한테는 마음에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저희 복지관에 책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저희 10월에 문화축제 겸 책발표회가 있는데, 주민들 앞에서 공연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새로운 활동에 부담감이 있어서인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은 한명 두명 해보자고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공연이라는 목표도 생기다 보니 꾸준히 연습하게 되었고,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드디어! 문화축제날! 어르신들이 색동 앞치마를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소파공원으로 모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공연이라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안 하던 립스틱도 발랐어~!”

꽃단장하신 어르신들이 서로 칭찬하느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노랫소리가 작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공명실로폰 소리, 정겨운 노래소리, 어르신들의 미소와 열심히 하는 모습이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흐뭇한 표정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과 공연을 마치고 관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생한 어르신들이 돌아오는 길에 소감이

자연스럽게 오셨습니다.

“어유 선생님 ~ 두 곡만 하니 너무 아쉬워요.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해요.”

“공연하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나한테 딱 오니까 정말 떨렸어.”

“목소리가 작아서 아쉬웠어. 그래도 우리 너무 잘한거 같아요.”

“재미있었어.”

공연을 마치자 서로 격려들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 앞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었을 겁니다.

| 우리, 소풍가요~

공연을 잘 마치고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재미나게 놀다 오자고 말입니다.. 작년에는 3명의 어르신만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올해는 7명이나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주도성을 조금 살리고 싶은 마음에 회의록도 가져가 어르신께 부탁도 드리고,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용마산, 망우산... 가고 싶은 나들이 장소도 후보도 받고, 투표도 하고, 준비물도 작성하는 등 제법 주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어르신을 배려하여 가깝고도 나들이 기분을 낼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스타렉스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거리마다 노랗게 물든 길이 보입니다.

“와 여기는 노랗게 물들었네~”

"나는 우리 딸 아이가 7살 때 어린이대공원에 갔는데 그 딸 아이가 벌써 50세가 넘었어. 몇 년 만에 가는건지...간다고 하니까 설렘다니까~"

어르신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들뜬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도착! 나들이니까 저희 멋지게 선글라스 끼고 사진 찍어요. 어린이대공원의 낙엽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어르신들의 미소는 활짝 빛났습니다. 짜잔 ~ 멋쟁이 어르신들로 변신!

다음은 젠가 놀이도 하고, 벌칙으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해~ 당화~ 피고 지는~" 틀려서 벌칙으로 노래를 불러도 다같이 부르니 재미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을 이야기하고 누구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감/밥/소고기/코다리 냉면/오늘 먹은 갈비탕

‘제가 좋아하는 가수/노래는?’

신유/ 섬마을선생님

누구인지 서로 찾고 맞춰가는 재미에 어르신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깐 서로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 수 있네요?”

"여기 언니가 좋아하는 감 있네~ 언니 감 많이 먹어~"
덕분에 이웃을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간식타임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 각자 챙겨온 간식들을 모아보니 풍성했습니다.
"다음엔 밥 먹지 말고 이렇게 싸와서 놀아요~ "
"이렇게 나들이 오니까 즐거웠어요~"
"오늘 나들이, 비도 오지 않고 춥지도 않고 완전 딱이었어!"
나들이의 재미 붙인 어르신들~
다음에 또 놀러 가자고 먼저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꾸준히 모이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챙겨주고 나눠주면서 모임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



면목3·8동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배발공원 나들이

이다은

함께한 사람들



항상 웃음을 선사하는 유쾌하고 따뜻한 **송주옥** 어르신
무한한 동네모임 사랑꾼 **윤병식** 어르신
재치있는 한 마디로 모두를 웃음 짓게 하는 **이귀임** 어르신
가녀린 몸에서 나오는 슈퍼 파워 **이순종** 어르신
선글라스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여인 **이월순** 어르신
부드럽고 다정한 카리스마 **장정자** 어르신
그녀의 한글 사랑은 끝이 없다! **전경자** 어르신
춘테레의 정석, 아무도 모르게 챙겨주기 장인 **채대원** 어르신
남다른 손재주를 지니신 우리의 화가 **허기수** 어르신
초록상상 '신나봄' **이아림** 선생님, **김영복** 선생님

자칭 면목3·8동 ‘터줏대감’ 동네모임

| 따스한 초여름날, 어르신들과 함께한 숲 나들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면목3·8동 터줏대감 어르신들이 모여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그야말로 ‘터줏대감’ 같은 존재입니다. 이 특별한 모임은 매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밭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 어르신들과 함께 초록이 가득한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한참을 웃으며 사진 속에 담기는 순간들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모인 어르신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라는 말과 함께, 배밭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어린 시절 소풍처럼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산길을 따라 걸으며 오랜만에 돌아온 이곳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는 듯, 한 어르신께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이곳에 오게 되었네. 덕분에 말이야.”

이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내가 48세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벌써 84세야. 그런데 중년 시절은 다 잊고 살았어.”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웃음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산에 온다고 화장도 했지.” 한 어르신이 농담을 덧붙이며, 멋진 모습으로 산길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르신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치자물들인 손수건을 좀 꾸며봤어.”라며 손수건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칭찬하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이곳에서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 숲속 운동기구에서 터진 웃음



배밭공원의 숲속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만난 어르신들은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기구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이순종 어르신은 운동기구를 들고 흔들어 보셨습니다.

“기계가 꼼짝도 안 하네.”

“그게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망가진 거야.”

채대원 어르신은 재치 있는 한마디에 모두가 웃음을 터트리는 가운데, 송주옥 어르신께서는 “내가 고쳐볼까?” 하시더니 운동기구를 번쩍 들어 올려 주위를 폭소로 물들이셨습니다.

| 트로트 체조로 하나가 되다



숲속의 작은 공터에서 트로트 음악에 맞춰 시작된 체조는 모두를 단숨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경쾌한 리듬에 맞춰 어르신들은 저마다 신나게 몸을 흔들며 신나게 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춤춰본 게 언제였나 모르겠네!”

더 열정적으로 체조를 따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이웃 주민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어르신들께서 가져온 음식을 꺼내셨습니다. 장정자 어르신은 싱싱한 오이를, 허기수 어르신은 달달한 유자차를 가져오신 덕분에 모두의 입이 즐거워졌습니다.

채대원 어르신께서는 이웃 주민에 차 한 잔을 건네며 “같이 나누면 더 좋잖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감사의 인사가 오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 사진으로 남긴 잊지 못할 기억들



추억을 남기기 위한 사진 촬영은 나들이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미소 짓는 어르신들, 의자에 앉아 멋진 포즈를 취하는 어르신들. 그들의 소년소녀처럼 즐거운 마음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기 와서 이런 재미도 있네.”라며 즐겁게 웃는 모습에서, 이곳에서의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추억은 어르신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 보양식으로 이열치열!

마지막으로 나들이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르신들은 누룽지 백숙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한 백숙 국물에 모두가 감탄하며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옵시다~ 날도 너무 좋고 완벽한 하루였어~”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이 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야.”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따뜻하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졌고, 함께 한 시간은 그 무엇보다 값진 추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소소하고 즐거운

면목3·8동

건강돌봄 동네모임

박선자

함께한 사람들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야, 나는 해낼 테니까 **박용범**어르신
장금이도 울고 갈 요리고수, 조용한 카리스마 **김상식**어르신
체구는 작지만 경험은 누구보다 크다 **김주환**어르신
봉사할 일을 찾아다니는 뭐든 가능한 **신문철**어르신
모두를 사랑으로 챙겨주는 든든한 왕언니 **신정년**어르신
프로그램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해 시간을 알리는 **하옥희**어르신
모임을 좋아하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배려남 **최연출**어르신

동네 모임의 시작

| 조금 멀어도, 오늘은 우리 모임날

“비가 올까 봐 미리 왔어요.”

동네 모임을 누구보다 좋아하지만, 이번엔 장소가 조금 멀어져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도착하신 최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생활지원사) 말을 잘 들어요.”

전동차가 몸의 일부처럼 익숙한 최어르신은 비만 오지 않으면 문제 없다면, 모임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일찍부터 준비했지. 우리 선생님이 미리 전화해주거든요. 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절뚝거리는 발도, 떨리는 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준비하고 도착한 박어르신도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어르신은 기다렸다가, 굽히는 자세가 힘든 박어르신의 신발을

챙겨 신발장에 정성껏 넣어주는 배려가 있습니다.

“어서 와요~ 잘 왔어요!”

포근한 목소리로 환영 인사를 건네는 신어르신이 모임의 왕언니답게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소가 멀어져서 좀 걱정했는데, 와보니 잘했어.”

최어르신의 말씀에 박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리 앞으로 빠지지 말고 꼭 나오자고요.”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새롭게 모임에 나온 어르신들도 이 따뜻한 분위기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진 장소도, 느려진 발걸음도 이 마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 모인 우리들의 모임날입니다.

아!, 여기는 38동 (노인맞춤) 동네모임입니다.

| 이게 뭐라고, 안 돼?

2회기부터 건강돌봄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며 모임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간단한 손운동이지만 손이 맘 같지 않아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활동가의 에너지에 이끌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안 돼?”

하며 어르신들 사이에 웃음이 터지고, 그 웃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집중도가 올라갔습니다. 손 운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모두 열심히 따라 하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숙제로 집에서 연습해오기로 했는데 다음 금요일에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 낙상예방 운동 함께 할 때 더 쉬워요!

오늘은 건강강의에 동네 친구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녹색병원 작업치료사 선생님께서 낙상예방과 운동법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해야죠!

“집안 바닥에 걸리기 쉬운 물건은 다 치워두셨나요?”

한참 조용하더니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알지요, 알지요. 치워야 된다는 거. 그런데 맨날 치우다 보면 또 어지러워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할 때 생기더라구요”

“낙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한 어르신이 질문하자 서로의 고민이 비슷한 듯 다른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셨습니다.



작업치료사님은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예방 운동을 배워보자고 하셨습니다.

“함께 할 때는 잘 되는데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하고 싶는데 영상을 보내줄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을 집에서도 꾸준히 실천하시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철도공원 시간여행

꽃이 만발하던 날, 화랑대 철도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들뜬 마음으로 스카프를 두르고, 썬글라스도 착용하는 등 한껏 차려입고 모이셨습니다.

“와 여기 언제적 열차예요?”

어르신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하니, 한 명씩 자리를 잡고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앉아봐야지!”

“나도 여기!”

“와, 저기 달걀 차다! 나는 달걀 장수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고는 카트를 잡고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나는 주문할래요!”

어르신들의 재치 있는 연기에 모두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각이 나네~!” 어르신들은 시간여행을 다녀온 듯

즐거워하였습니다.

정어르신은 “혼자서는 많이 다녀봤는데 여럿이 함께 오니 기분이 색다르다”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기차 한칸에서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시장에서 만나니까 반갑더라고

오늘은 김어르신이 싱글벙글 기분 좋은 모습으로 활동에 참여 하셨습니다.

“어제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같이 먹었네요.”

두 분이 시장 한편에서 천진난만하게 아이스크림을 드시며 웃으셨을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부러움 가득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찾아오는 소중한 순간들이 어르신들께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께도 마을 안에서 이런 즐거운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길 바랍니다.



면동초 '빛나는 10대 SUNNY10'

환경캠페인

윤석호

함께한 사람들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는 분위기 메이커 **김민서 아동**
끼쟁이 중의 끼쟁이! 바쁜 멀티 플레이어 **김지연 아동**
이쁜 손 글씨로 따스함을 전하는 편지 마스터 **연세빈 아동**
어르신들께 과일을 깎아드리는 마성의 매력 소유자 **이상원 아동**
놀라운 추진력으로 모두를 이끄는 책임감의 대명사 **장주아 아동**
반전 매력으로 모두를 감동시키는 열정 소유자 **홍성호 아동**

아이들의 주도로 진행하게 된 환경캠페인

| 함께 할 결심!

면동초 어린이 마을활동가로 세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참여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가 새로운 친구로 참여했는지, 이전 학기에 참여했던 친구는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이전에 참여했던 아들과 처음 참여하는 아들은 분위기에서부터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긴장된 눈빛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이라면 누구나 떨리기 마련이니까요. 벌써 여러 번 만남을 거듭했지만, 저희 역시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어린이 마을활동가를 설명할지,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은 바로 이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면동초 씨니텐 활동이 다른 수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씨니텐(어린이 마을활동가)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요.”

역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이어서 답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찾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아요.” “준비는 힘든데, 하고 나면 뿌듯해요.”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던 아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활동이 꽤 인상 깊었나 봅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지난 활동들을 되짚어 보며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난 첫날, 함께 할 결심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 살펴보기

무엇을 할지에 앞서, 아이들은 개념 정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마을이란 무엇인지, 마을활동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캠페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캠페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평소 자주 듣던 단어들이지만, 정확한 뜻과 방법을 직접 찾아보며 이해해 나갔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 다 아는 단어인데 꼭 찾아봐야 해요?”라고 되물으며 그 과정을 번거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확히 이해해야 목표와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려했습니다. 마을, 마을활동가, 캠페인,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직접 마을로 나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녀노소 모두가 일상을 즐기는 까치공원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마을탐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마을활동가’라는 역할로 나가보니 아이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줄줄 이어집니다.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아요. 금연공원인데 담배꽂초가 너무 많아요!” “유치원 다니는 동생도 많이 오는데, 고운말을 쓰면 좋겠어요.” “놀이시설에 이렇게나 많은 낙서가 있는 줄 몰랐어요.”

평소 즐겨 찾던 장소라 그런지, 아이들의 눈에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하고 싶은 일들도 떠오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떤 캠페인을 해야 할지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가 스스로 해요

북적이는 꿈둥지실, 까치공원 환경캠페인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동영상 제작하는 아이들은 시작도 전에 계속해서 편집 작업에 몰두합니다. 지난주에 수세미로 낙서를 지워본 상원이는 이번에는 집에서 청소도구를 직접 챙겨왔습니다.

“선생님, 엄마한테 얘기해서 잘 지워지는 걸로 몇 개 가져왔어요. 오늘 끝나고 연습 좀 해보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아이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며 끝난 뒤

에도 더 하고 싶다면, 오히려 저희에게 시간이 되는지 물어옵니다. 아이들의 열정에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주민 역할과 캠페인을 안내하는 역할로 나누어 실제상황처럼 연습을 해봅니다.

“선생님, 자꾸 말이 꼬여요. 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면 어떡하죠?”

마음은 앞서지만 걱정이 많아지는 아이들에게, 직접 써보며 준비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켠에서 대본을 작성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렇게 써니텐 아이들은 다음 주 환경캠페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준비를 마칩니다.

| 마을활동가로서 성장

느림한 써니텐 아이들이 캠페인 장소로 모여듭니다. 처음 꿈둥지실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수줍던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어의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 직접 마을로 나가 보고 경험한 것을 찾아본다는 것이 이렇게나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캠페인 장소로 걸어오는 아이들의 모습만으로도 눈에 띄게 달라진 자신감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기세와 달리 푹푹 찌는 폭염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써니텐 아이들의 부모님도 아이들을 염려한 듯 음료수, 아이스크림, 선풍기를 들고 응원을 나왔습니다.

“민서가 집에서 핸드폰을 오래 하길래 봤더니, 환경캠페인 영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의 노력이 기특했는지, 부모님은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이 없을까봐 지연이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또한, 성호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학생 전원이 나와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어른들 역시 아이들이 그간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각자의 역할을 묵청껏 소화해 냅니다. 줍김으로 모은 쓰레기들은 봉투를 가득 채웠고, 여기저기 낙서로 검게 변했던 미끄럼틀은 자기 색을 되찾았습니다. 양손으로 양동이를 수차례 옮긴 탓에 옷이 모두 젖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가득합니다. 동영상 제작을 맡은 아이들은 지나가는 주민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 주민을 모읍니다. 아이들의 간절한 외침 덕분인지, 어느새 까치공원은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적이며 말 그대로 환경축제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 다른 한편에서는 친환경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동영상을 보고 OX퀴즈에 참여하는 아이들, 그리고 물 호스를 뿌리며 낙서를 지우는 아이들까지 써니텐 아이들은 마을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주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써니텐 활동은 조금 힘들지만 정말 뿌듯해요!”

“저는 오늘만큼은 꼭 일기장에 써야겠어요. 나중에 보면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씨니텐 마을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아이들에게 칭찬이 아깝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함께 도와준 친구들,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부모님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면동초 '빛나는 10대 SUNNY10'

산타나눔활동

이다은

함께한 사람들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는 분위기 메이커 **김민서 아동**
무엇이든 맡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노력파 **김예주 아동**
끼쟁이 중의 끼쟁이! 바쁜 멀티 플레이어 **김지연 아동**
톡톡 던지는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촌데레 매력 **오민혁 아동**
사물놀이, 캐롤 율동 퍼포먼스의 천재 **오승혁 아동**
이쁜 손 글씨로 따스함을 전하는 편지 마스터 **연세빈 아동**
깁스해도 할 건 해야지! 열정 넘치는 **유시영 아동**
어르신들께 과일을 깎아드리는 마성의 매력 소유자 **이상원 아동**
넘치는 호기심!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에너지이저 **장윤서 아동**
놀라운 추진력으로 모두를 이끄는 책임감의 대명사 **장주아 아동**
관찰력, 춤, 큐브 못하는 게 없는 열정 가득 재주꾼 **조민지 아동**
반전 매력으로 모두를 감동시키는 열정 소유자 **홍성호 아동**
예리한 분석력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는 까칠 매력러 **홍지우 아동**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일산타 !

| 매주 목요일, 빛나는 10대 SUNNY10'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면동초등학교 꿈둥지실에서는 면동초 아동들의 반짝이는 마을활동 ‘빛나는 10대 SUNNY10’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지난 학기, 웃음꽃 피우며 참여했던 아이들에 이어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합류해 더욱 활기찬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마을활동에서는 까치공원 문화축제의 특별부스를 운영하고, 직접 만든 요리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요리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이벤트! 아이들이 일일 산타가 되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러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행복한 미소를, 아이들 자신에게는 뿌듯한 기억을 선물한 훈훈하고 귀여운 나눔 현장! 함께 떠나보 시죠.

|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준비 과정

까지공원 문화축제에서의 활약, 그리고 요리 나눔활동! 아이들은 그 소중한 경험을 되새기며 “나눔이 왜 이렇게 즐거웠던 거지?”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에 온 친구들한테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그 친구 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나눔을 하면서 제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활동에서 나눔의 기쁨과 성장을 경험한 아이들. 이번 겨울도 나눔하며 연말을 마무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올해 연말도 따뜻한 나눔으로 마무리하자!”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추위, 따뜻함, 온돌, 호빵, 이웃, 구세군, 나눔, 캐롤, 산타, 선물... 겨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하며 “이번엔 뭘 해볼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길에 지나가시는 어려운 어르신들께 나눔을 해보는 건 어때요? 요

즘 날씨도 추운데, 핫팩이나 장갑 같은 겨울용품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어려우신 분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선물 드렸는데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지?”

아이들 사이에 고민과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모두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 1일 산타가 되어보자! 나눔에 진심인 아이들의 이야기가 또 한번 따뜻하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 캐롤과 선물로 채운 행복한 순간



처음 뵈는 어르신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아이들은 편지지에 정성스러운 손길을 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께서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한 날들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200살까지 만수무강하세요 ♥”

이 귀여운 소망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활짝 피어나길 바라며, 산타 준비는 계속됩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내의, 패딩 조끼, 핫팩, 양말 등을 이쁘게 포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산타의 필수 스킬, 루돌프송 율동 연습!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워하던 아이들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야!”를 외치며 신나게 율동을 익혀갑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도 율동하도록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이며, 열정 넘치게 임해봅니다.

포장부터 율동까지! 산타의 모습으로 완벽 변신 중인 아이들, 어르신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 설렘이 가득합니다.

| 나눔의 온기로 채워진 훈훈한 방 안

드디어 기다리던 D-DAY! 오늘은 1일 산타로 변신한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율동과 선물을 전하며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는 날입니다. 어르신 댁에 도착하기 직전, 아이들의 심장은 콩닥콩닥! 설렘과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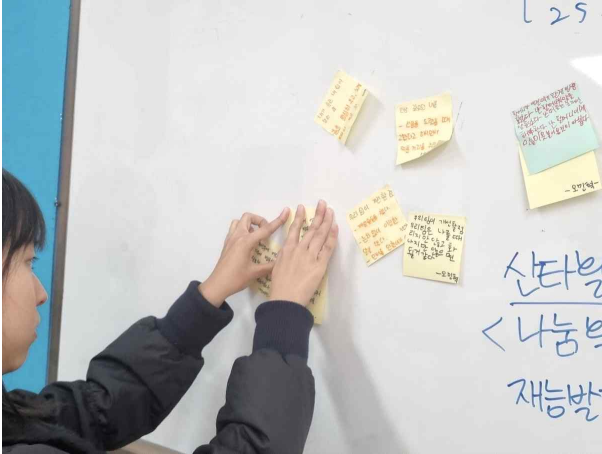
에 표정을 잔뜩 굳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꺾이는 미소에선 산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어르신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추운 날씨에 떨고 있을 아이들을 걱정하시며 따뜻한 방으로 열른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손수 준비한 선물과 열심히 연습한 루돌프송 울동을 선보이자, 어르신께서는 감동한 나머지 부엌으로 달려가셨죠.

“아이구.. 추운데 이렇게 예쁜 편지도 써주고.. 너희가 좋아할 거 좀 더 준비해 둘 걸 그랬네. 고마워, 강아지들~” 사랑스러운 칭찬에 아이들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과 함께 간식을 나눠드립니다. 면목3·8동 어르신,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나눔의 씨앗, 마음속에 싹트다



지난 산타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날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울동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어르신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뿌듯했어요!”

“어르신께 칼림바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어르신께서 인생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인상 깊었어요. 더 많이 못 물어본 것이 아쉬워요.”

아이들은 나눔을 통해 느낀 따뜻함과 보람을 이야기하며, 추억에

젖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도 큰 성장을 경험한 아이들. 산타 모험을 통해 아이들 마음속에 ‘나눔의 씨앗’이 심어진 듯합니다.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떤 따뜻한 열매로 자라날지 기대해 봅니다!

면목3·8동의 기관들이 힘을 합치다!

우리 마을 문화축제

문효성

함께한 사람들



필요하면 언제나 아이들을 동원해서 달려왔던 **동원지역아동센터**
축제의 공연이면 공연, 체험이면 체험 일당백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축제도 식후경 K-간식 떡볶이를 책임졌던 **금손 희망유스나래**
까치공원을 신나게 만들어준 분위기 메이커 **면동초등학교**
지역축제에 한걸음에 달려와 준 **3·8동주민자치위원회**
예술에 다재다능한 아이들이 많은 **서울지역아동센터**
발 벗고 여러방면으로 도와주신 든든한 **면반장**
축제 유경험자라 능숙하게 진행하는 **열면친구들**
어르신들의 단합을 보여준 공명실로폰 연주단 **소파공원건강모임**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캐리커처부스 **서일대학교 웹툰스토리학과**
축제를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면목3·8동주민센터**

어떻게 하면 축제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 주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축제를 하고 싶다에서 시작된 고민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복지3팀은 면목3·8동을 담당하며 크고 작은 축제들을 통해 마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축제를 하면 좋을지 천천히 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면목동 주민이라면 어떤 축제가 기억에 남을까?”

내가 면목동에 사는 주민이라면 하고 싶은 축제들을 하나씩 떠올려봅니다. 또, 담당자로서 마을에 다가가기 위한 축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눕니다. 조금씩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축제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뽐내는 축제였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축제도 해? 되게 재밌다!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

“우리 복지관만이 아닌 다른 3·8동의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풍성한 축제였으면 좋겠다!”

| 발로 뛰며 우리 마을의 기관들을 찾아가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축제 준비,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 외에도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누구나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축제 진행을 위해 3·8동에 위치한 기관들이 쉽게 뭉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우리 마을 문화축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축제를 함께 할 기관들을 생각하다 보니 가장 먼저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있는 기관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말이 나온 김에 망설이지 말고 바로 3·8동에 위치한 아동·청소년 기관들을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마다 가끔 들렸었죠? 저희 면목복지관..”

“이번에 저희 복지관에서 기관들이 뭉쳐서 함께 했으면 하는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열심히 축제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해봅니다. 서로 다른 기관들이

지만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기억에 남는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문하면서 함께 할 기관들이 ‘하나, 둘, 셋..’ 모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 5개의 기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동원지역아동센터, 참사랑지역아동센터, 면동초등학교, 희망유스나래입니다.

면목3·8동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다!

| 그렇게 시작된 두 번의 실무자 회의

“어서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기관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모인건 처음인데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소개부터 할까요?”

이름과 기관 소개로 인사를 나눕니다. 복지관으로 초대된 건 처음이지만 우리 마을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이미 아는 얼굴들이 대부분입니다. 축제하면 떠오르는 공연, 체험, 놀이, 먹거리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복지관에서 채울테니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운을 띄우니 기관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말해줍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노래를 잘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떡볶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처음 모이는 시간이다 보니 어색함도 있었지만 ‘마을을 위한 축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눌 것들을 이미 고민하고 오셨기에 축제 준비 회의가 순조롭게 이뤄집니다.

| 전달까지 이어진 소통

회의를 통해 역할이 정해지니 다음은 각 기관으로 돌아가 연습과 준비만 남았습니다. 소통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하고 틈틈히 연습하는 사진도 올라옵니다.



“우리 면동초등학교는 오늘 아이들이 사물놀이 준비했어요”

“저 원장회의가서 원장님들에게 홍보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니 다른 장소지만 옆에서 함께 축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드디어 막이 오른 3·8동 문화축제

| 축제의 막판 스퍼트 준비하는 오전

축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축제 시작은 오후 4시지만 오전부터 까치공원으로 달려갑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알리고 축제의 느낌을 조금 더 내기 위하여 만국기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서둘지만 하나씩 설치하니 제법 모양이 그럴싸합니다.

공원에 있던 어르신들이 슬쩍 와서 “오늘 공원에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보시며 관심을 가집니다. 정겨운 관심에 슬쩍 축제 홍보로 답합니다. “저희 오늘 오후 4시에 여기서 축제하니 꼭 놀러오세요!”



| 주민들이 진행하는 축제 그리고 주민들의 발표회

오후가 되니 각 기관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합니다. 무대도 설치하고, 신나는 노래도 틀고, 음식도 준비하니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축제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이지만 먼저 모인 주민들을 위해 사전공연부터 진행합니다.



“자 이제 문화축제 공연을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그렇죠??!”

“저기 저분 가장 큰 리액션을 해주셨는데 저분께 상품 지금 바로 씁니다!”

오늘 문화축제의 MC는 면동초등학교의 귀여운 아동들입니다. 축제를 위해 사전에 모여며 대본도 스스로 짜고, 연습도 하고, 춤도 준비했습니다. 능숙하게 진행했던 교실과 달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작하니 조금 떨기도 했지만 그 모습마저 축제의 재미로 귀엽게 봐줍니다.



첫 번째 사전공연은 면동초등학교 사물놀이 얼쑤팀입니다. 흥겨운 우리 음악을 아동들이 연주하니 축제 분위기가 더욱 달아오릅니다. 아동들의 에너지를 이어받아 소파공원 할머니들의 공명 실로폰 연주도 펼쳐집니다. 공연 후 아동 MC들이 “가사 중 모두 다 꽃이야!”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 모두 꽃처럼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니 공원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전공연이 끝나고 소파공원 할머니들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활동한 것에 대한 소감 발표도 준비했습니다. 복지관과 만나 함께

했던 기억에 남는 마을의 활동들을 주민의 목소리로 마을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파공원에서 추억잔치를 했는데 전 봉숭아 물들이기를 담당했어요. 그 날이 8월이라 정말 더웠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하면서 손가락을 내어주니 더워도 너무 귀엽고 재밌었어요!”

“집에만 있었는데 복지관을 만나고 살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활동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고, 어색하기만 했던 소파공원이 좋아졌어요!”

천천히 당시를 떠올리며 소감을 말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살짝 서늘한 10월이지만 따뜻한 공원의 분위기로 변화됩니다.

| 축제에 어울리는 놀이, 체험, 먹거리 등 다양했던 부스

축제는 공연 5팀 외에도 총 10개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주민들은 신나는 공연, 맛있는 먹거리 외에도 스탬프 투어로 이뤄지는 놀이, 체험부스에도 삼삼오오 모여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자 스탬프 투어를 받고 놀이, 체험들을 완료하고 오면 여기서 상품을 줄거야!”라고 말하니 부스들로 달려갑니다.



체험부스는 동원지역아동센터 이니셜 핸드폰 고리 만들기, 참
 사랑지역아동센터 슈링클스 만들기, 면동초등학교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아동이 직접 부
 스를 운영하기에 대기시간이 조금 길리지만 천천히 기다렸습니
 다. 열심히 운영하는 아동의 모습을 보니 소감이 궁금했습니다.
 운영을 했던 한 아동은 “저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기뻐하는 사람
 들을 보면서 보람차고 재밌었어요!”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축제
 를 즐겁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당 사회복지사로서 더욱
 힘이 납니다.



놀이부스는 희망유스나래 공기놀이, 면동초등학교 놀이롤렛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축제를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미 요소이기에 미션을 상, 중, 하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전하러 온 아이들은 처음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상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내 실패합니다. 승부욕이 발동해서 ‘다시 또 다시..’ 도전합니다. 연이은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님들은 웃으며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카메라를 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축제에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먹거리였습니다. 먹거리에는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좋아하는 K-간식 떡볶이와 어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떡볶이 달인 팀장님의 솜씨를 맛본 주민들은 넉넉하게 받았음에도 재주문 의사를 가지고 다시 방문합니다.

축제가 시작하고 20분만에 가장 먼저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아동이 왔습니다. 1등이기에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꾸민 선물을 양손 가득 받습니다. 아동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사진을 찍으

며 부모님에게 자랑하러 갑니다. 준비한 스티มป์ 투어지는 총 150장, 그러나 금방 소진되어 급하게 뒷장에 재사용합니다. 5개의 기관이 협력해서 진행한 만큼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체험이나 놀이부스에는 긴 웨이팅도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진행하는 인력들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진행합니다. 협력해서 진행한 5개의 기관, 우리 마을을 위해 도와주신 주민봉사자, 재밌고 즐겁게 참여해주신 주민들 등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풍성한 문화축제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복지상담소

문효성

함께한 사람들



정겨운 시장을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윤재길 회장님**
방문 때마다 요구르트 하나씩 내어주시는 **소문난해물칼국수 사장님**
조용하게 배려하고 도와주시는 **임규환 매니저님**
항상 따스게 맞아주시는 **대원이불 사장님**

복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오세요!

| 마을의 사가정시장에 있는 복지상담소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면목3·8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은 면목4동에 위치했기에 거리가 있어 복지관 방문을 어려워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면목3·8동에는 마을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가정역 1번 출구 길 건너편, 이름도 가정적이고 온화한 사가정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정시장에는 마을과 복지관을 이어주기 위해 마음 써주시는 이음가게들, 명절에 맞춰 진행되는 한가위 이벤트, 주민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복지상담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관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복지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사가정시장의 한 편에서 조금 더 마을에 복지상담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쭙봤습니다. 사가정시장 상인회 회장님은 “그래. 복지관이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라고 답해줍니다.

| 복지상담소를 마을에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

지난 4월 면목3·8동을 담당하는 복지3팀이 모였습니다. 복지상담소를 마을에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 진행을 위함이었습니다. 홍보캠페인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다 보니 “실제 3·8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선 장소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사가정역 1번 출구, 복지상담소가 있는 사가정시장 대원이불 건물 앞”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가 사가정시장 상인회 회장님에게도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장소가 고민이라고?”

“우리 시장 동문, 남문쪽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실제 3·8동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오는 길이야.”

“동문이면 우리 총무님 가게 앞에서 해. 내가 얘기해둘게.”

고민했지만 고민이 무색할 만큼 사가정시장 상인회 회장님 덕분에 손쉽게 장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고 홍보하기 위해 사가정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도 고민이던 복지관에게 사가정시장 사장님들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주며 힘을 보태주십니다.

“홍보지? 붙여줄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도록 메뉴판 옆에 붙여.”



그렇게 복지상담소 홍보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1명, 2명..” 마을에 복지상담소를 알리며 처음 복지관을 알게 된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던 어머니, 매일 집에 혼자 있다 보니 건강과 식생활 걱정이 많았던 아버지, 이사 온 지 별로 되지 않아 마을에 대해 모르던 어머니 등 복지 도움이 필요했던 주민들을 만나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드렸습니다.

| 마을의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복지상담소

매주 목요일 오후 3·8동 주민들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한 복지상담소 운영도 이어갔습니다. “복지관은 용마산 언덕에 있어서 찾아가기 어려운데 여긴 그래도 올만해”라며 복지관과 거리가 먼 주민들, 복지 도움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던 주민들 등 복지상담소 덕분에 여러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사가정시장에서 복지상담소를 운영한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말해주는 회장님, 더운 여름이면 미리 에어컨을 틀어두는 매니저님, 만날 때마다 눈웃음으로 반갑게 인사해주며 오늘도 고생한다고 챙겨주시는 1층 대원이불 사장님 등 담당 사회복지사 외에도 마을을 생각하는 분들 덕분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주민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한 사가정시장 내 복지상담소 내년에도 마을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사가정 시장 사장님과 함께한

이음가게 면담정

강예정

함께한 사람들



이음5호 대원이불 이음9호점 먹자도비아 이음23호점 안방다방 송여사(사)경시장 회장님



이음6호점 다모포차 이음3호점 양평해장국 (주)무안동림이(목서리)장 직판장 이음25호점 낙원떡집 이음13호점 덕이네반찬



이음24호 손두부마을 이음12호 여기가 좋겠네 이음2호점 소망상회 이음4호점 여천상회

호탕한 웃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송여사 사장님
 알뜰살뜰 사회복지사 근황을 챙겨주시는 대원이불 사장님
 정동원을 좋아하고, 웃으며 일하는 여천상회 사장님
 도깨비시장과 산 역사이신 소망상회 사장님
 따뜻한 인상으로 복지사들을 맞아주시는 손두부 마을 사장님
 언제 가도 어서와! 라며 인사를 받아주시는 여기가 좋겠네
 우리동네 키다리 아저씨 같은 멋진 안방다방 사장님
 이음가게의 취지를 잘 알고 설명해주시는 무안 쌀 직판장 사장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낙원떡집 사장님,
 배우 목소리로 아이들을 반겨주신 먹자도비아! 사장님
 아이들을 기다려주시는 마음 넓은 덕이네반찬 사장님
 면목동에서 40년 역사를 함께한 다모포차 사장님

마을행사에 처음 참여한 이음가게 사장님

| 참여의사 여쭙보기

매주 목요일이면 사가정 시장에 들러 이음가게 사장님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아~ 목요일이군요! 늘 오며가며 인사만 하던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한 사장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인사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지만 마음 한 켠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사장님들과 함께 특별한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고민하던 찰나 예전에 면목4동에서 진행했던 ‘이음가게 면담정!’ 이 활동을 사가정시장에 맞게 새롭게 기획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재미있을 순 없을까?’, ‘사장님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방탈출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이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11월 초, 사장님들께 인사하며 12월에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쭙었습니다.

“아이들과 한다고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장철이라 바빠요~”

“그런건 젊은 사장님들이 해야지! 다른 젊은 사장님들 찾아봐봐”

“내가 문제 내는건 어렵지만, 아이들이 하는 인사는 받아줄게요.”

참여 여부를 물었을 때 대원이불, 여천상회, 소망상회, 손두부 마을, 여기가 좋겠네, 안방다방, 송여사, 낙원떡집, 먹자도비야!, 덕이네반찬, 다모포차, 무안쌀직판장 총 12곳에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 함께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으니 사장님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참여가 어려워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이음가게 2~3곳씩을 방문하며 사장님과 논의하였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문제 같이 얘기하러 왔어요!”

방문하는 곳곳 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던 사장님들의 인사를 잊지 못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다 보니 담당자는 미리 사장님 가게와 관련한 문제를 추려서 사장님께 제안하였습니다.

“예전에 사가정 시장이 '도깨비시장'으로 불렸잖아요.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왜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아이들이 알면 좋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못 마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장님들이 담당자보다 더 기발한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문제들은 아이들에게 유용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평소 관계의 중요성

평소에 관계를 잘 쌓으면 협조를 구하더라도 흔쾌히 받아주십니다. 이벤트에 참여할 아동을 모집해야하는데 평소 관계가 있었던 동원지역아동센터장님께 연락드리고 방문하였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좋죠!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경험한다는게 얼마나 재미있나요?”

매년 동원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마을 활동을 하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협조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의미있게 봐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센터장님께 감사했습니다.

| 출지만 마음이 따뜻해진 하루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방문하여 사장님께 이벤트 참여 가게임을 알리는 간판을 전달하고 오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지와 해설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장님들은 다 걱정말라며 알겠다고 끄덕이셨습니다.

복지상담소가 본부가 되었습니다. 본부에 방문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진행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팀이 출발하여 첫 이음가게를 방문하였을 때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비라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원지역아동센터에서 여분으로 가져온 우산을 쓰며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께서도 우산을 빌려줘서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처음 미션을 받고 출발한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지만, 대원이불 가게 사장님도 처음 진행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하하 웃으시며 편안한 분위기로 설명하시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도 처음이라 어색하네~”

덕분에 아이들도 한결 긴장이 풀리고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양평해장국, 무안쌀직판장 사장님은 사가정 시장의 전 회장이신 만큼 사가정시장과 복지관이 함께 하게 된 이야기, 이음가게, 복지상담소 등 아이들에게 의미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은 미리 대본을 읽어보시며, 어렵지만 필요한 내용이기에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내주신 문제를 풀고 다음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회장님이랑 같이 해보며 교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문제를 풀고 신나서 회장님에게 정답인 이유를 설명해주었는데 마치 손녀와 할아버지 같기도 했습니다.

덕이네 반찬 사장님은 손님이 많이 몰려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줄래? 금방 시작할게~”라며 차분히 안내해주었습니다. 손님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색할까 봐 친절하게 설명해 준 사장님께 감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눈 마주치며 5초안에 4가지 반찬 이야기 하기 미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

“계란말이, 콩자반, 시금치무침, 콩나물 무침!”

퀴즈가 끝난 후 미리 준비해둔 학용품 선물을 전달하며 힘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모포차, 먹자 도비아, 송여사 등 지도를 가지고 이음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음가게 사장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초코 브라우니, 학용품 세트, 초코파이, 꿀떡, 굴, 국화빵 등 간식 및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달라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먼저 준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딱 배고픈 시간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힘을 내서 나

머지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비가 와서, 추웠지만 사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은 아이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세 팀 모두 문제를 다 마치고서 저희 팀에서 다같이 이음가게를 돌며 감사 인사와 활동 소감을 여쭙보았습니다.

“이런거 처음해봐서 처음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떨었어요.”
“우리 어머니(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사진 찍은거 보내주세요”
“재미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니까 나도 어린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비가 오는데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비가와서 어려웠겠다 싶더라구요”

감사인사를 전하러 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들도 알게 되면서 사장님께 상황을 전달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드렸습니다.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마을에 이렇게 참여해본 경험이 오래가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다음번에도 부탁드립니다만 더 잘하실거라 생각하며 내년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 뒷 이야기

이벤트 다음날 센터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가 와서 고생많으셨어요. 제가 다음에 커피 한 잔 쓸게요!”

센터장님은 지역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사장님들께 감사하다며 평소에 필요했던 이불도 하나 사시고, 포차에서는 음식도 사신다고 했습니다. 상점 효과를 높이고, 사장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지와 격려

매주 목요일 오후만 되면 직원들로 북적대었던 사무실이 텅 빈
니다.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각자가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나
가는 날이거든요. 봄가을이면 밖으로 나가는 직원들이 살짝 부
러울 때도 있는데, 너무 추운 날씨가거나 더운 날씨에는 왠지
걱정이 됩니다. 몇 시간 후 돌아오는 그네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갈 때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는 직접 부딪침으로 쌓아
가는 것이기 아닐까? 혹시나 하고 갔는데, 항상 있던 그 자리
에서 기다리시는 주민들을 볼 때 느끼는 감동 섞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때론 생각치 못한 감사와 나눔을 경험하고 온 직
원들의 목소리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낍니다. 이 과정은 저
에게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바쁜 업무와 마을활동 중에도 이렇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그 의
미를 찾아가려고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김영례 -

“복지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라는 질문에 이 책을 보여드
리고 싶습니다! 면목동을 사랑하는 복지사들이 동네 방방곡곡
다니면서 친구가 되기도, 도움을 주기도, 오히려 받기도 했던 것
을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을 위해 시작한 일 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복지사가 주민에게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면목동의
따뜻함과 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양지현 -

2024년 면목4동 마을에서 일어났던 모임들과 축제, 나눔들을 살펴봅니다. 작은 손길과 한걸음 내딛는 마음들이 모여져서 마을에 활력이 생기는 것도 함께 확인하고 감사해합니다.

“선생님, 필요한 거 있음 언제든 연락해요.”

“내가 아직까지 복지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주민분들과 연속적인 마을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복지관 사이에 생긴 믿음, 신뢰, 감사가 있습니다. 마을활동의 주체가 되는 주민분들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길, 마을을 위해 주민과 복지관이 더 돈독해지길 기대합니다. - 윤지영 -

매월 마을활동을 함께 나누는 직원 공유 자리인 ‘마을활동 수다 데이’에서 들어보면 직원들 바빠 면목동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 느껴졌는데 글로 다시 보니 그때는 알 수 없었던 고민과 과정, 노력과 애환이 문득문득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민들과 만나고 활동하고 그 뜻을 이뤄올 수 있었을까 놀랍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함께한 주민들도 또 지역 이음가게 사장님들도 또 알게 모르게 만났던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주민분!! 얼른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얼른 이 책 읽어보라고 권해주세요! 꼭 읽어보시라고 알려주세요~! 읽다가 아! 나도 해봐야지! 꼭 놀러 오세요~ 아자아자!! - 허준호 -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게 되는 소중한 가치를 잘 포착해서 글로 적고, 모두와 공유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면목4, 7, 3·8동, 복지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 추억과 의미를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 권수민 -

추운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새로 복지관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첫걸음은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 소중한 만남들은 따뜻한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민분들과 만남을 통해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끊임없이 주민분들을 위해 고민하는 직원분들의 모습에서 힘듦의 모습보다 열정과 기쁨으로 느껴져 저 또한 동기부여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직원분들께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5년엔 함께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 이준선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을 챙기는 섬세한 손길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매년 왜 이렇게 분주할까?라는 의문(?)의 답도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노력이 주민들에게 닿았을 때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주민과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이 연결 속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마음들이 겹겹이 쌓이는 것을 경험한 우리이기에!! 우리들은 또 분주함을 이겨내고 마을로 나아갑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힘이 되어 주시는 주민 한분 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최영주 -

주민과 함께한 이야기가 담긴 글을 읽으면서 면목복지관 직원들이 주민과 즐겁게 일해보고자 노력하고 애쓴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면목동 곳곳에서 주민과 이루어간 이야기가 더욱더 많은 주민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네요! 그래서 면목동 이야기를 읽으시며 우리 동네가 자랑스러워지고, 함께하는 이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모임으로, 축제로, 상담으로 만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고민하며 뜻있게 실천해나간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에진 -

"우리 참 잘했다! 너무 고생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팀의 글을 보면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을 조금 더 잘 만날 수 있을까, 함께 해볼 수 있을까 고민했던 마음과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주민의 한마디에 감동 받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진짜 정을 나누는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돌아보니 함께해서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글을 보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마음 담아서 의미있게 일했는지 잘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잘했다! 너무 멋지다 우리! 함께였기에 또 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목동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도 함께 할게요!" - 이주영 -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흑백요리사'에서 한 심사위원이 요리의 의도를 물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자의 철학과 노력을 묻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활동을 하며, 의도와 의미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뜻을 모으는지가 활동의 준비 과정부터 결과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주 느꼈습니다. 면동초 써니텐 아동, 소파공원 어르신 모임, 동네 건강모임, 복지상담소, 문화축제 연합 활동 등 각 활동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주민을 만나 나누는 가벼운 인사는 사소한 일이지만, 지역사회의 관계를 꽃피우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아 이루어진 것이었고, 아동이 “더 찾아보는 게 힘들다”고 말할 때에도 끈질기게 질문을 이어간 것은 힘든 과정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에게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이루어낸 성과들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각 글의 주인공이 되어준 지역주민 여러분과 뜻을 모아 협력해 주신 유관기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윤석호 -

2023년 마을활동 기록의 독자에서 2024년 작자가 되며 지난 마을활동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더운 여름엔 서로를 향한 부채질로, 선선한 가을엔 따뜻한 매실차로, 추운 겨울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마을 안에서 서로를 궁금해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 면목인으로 마을활동을 시작한 지 반년이 흐른 지금, 주민과 주민이 함께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기까지 책에 담긴 면목인의 열정과 노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풍성하고 의미있는 마을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 이다은 -

‘소파공원 건강체조’는 올해부터 담당자 외에도 막내 반장 어르신이 함께 앞에서 체조를 담당하며 더욱 신났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못해~~’하는 어르신들의 표현도 있었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모두 참여하며 긴장도 하고 꽃단장도 해온 모습이 사회복지사로서 너무 귀엽고 예뻐합니다. ‘터줏대감 동네모임’은 나이는 평균 연령 80대의 어르신이지만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학생같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마 어르신들에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담당자의 노력과 모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어르신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면동초 써니텐’은 아이들이 ‘뿌듯했어요!’라고 말한 소감처럼 경험이 중요한 아이들이 마을활동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올해 특히 면목3·8동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주민들의 노력이 모인 덕분에, 또 고민이 있을 때 나누면 함께 고민하고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함께 달려드는 팀의 추진력 덕분에 많은 일들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추억을 양분 삼아 내년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문효성 -

올해 주민들과 함께한 활동이 이렇게나 많아 놀랐습니다. 마을활동은 늘 주민들이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관계가 이어졌을 때 마을활동을 하는 이유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팀은 각기 활동처가 다르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애쓰는 마음에 든든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 캡틴 윤석호 팀장님,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어떤 부탁에도 “좋아요”하며 힘을 실어주는 문효성 주임님,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귀여워하고,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고민하는 막내 이다은 사회복지사. 세 명의 든든한 분들이 계시기에 더 신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하는 날까지 주민에게 묻고, 듣고, 의논하고, 감사함을 전하며 재미있게, 의미있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 강예정 -

'면목, 마을에 살다'를 기록한지도 벌써 3년째가 됩니다. 연중에는 바쁘게 주민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활기 가득한 현장에 집중하다가 연말이 되면 그 시간을 다시 돌아보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모임과 마을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다채롭게 펼쳐지는 주민들의 강점과 매력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주민들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거리들을 함께 만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뿌듯하고,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온 직원들에게 모두 격려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만의 색깔을 발견해가는 여정에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실천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 박민아 -

동네 모임에 처음 참여하면서 어르신들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즐거웠습니다. 팀의 다양한 활동이 상황에 맞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복지사는 만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설득하여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함께 정하지 않아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의 변화를 보며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열정 덕분에 이야기들이 더욱 의미를 담았고, 그 긍정의 에너지가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면목동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 최진주 -

주민분들과 가까이 소통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배움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을에서 인정(人情)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따뜻함과 감동을 글로 남긴 후 책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마을에서의 활동과 이야깃거리가 무척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주민과의 어색했던 첫 만남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인사드리니 관계가 쌓이고, 지금은 마을 어디를 가나 반겨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여정이었지만 그런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생생함과 현장감을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한 우리 모두(주민, 이음가게, 직원 등)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격려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면목동이길 바랍니다. - 김정연 -

이번에 마을활동 기록에 참여하며 선생님들의 활동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파공원의 만능 에너지저강예정 대리님! 자원봉사자의 공백을 오히려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모임을 꾸려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 경로당 참여를 주저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소파공원을 찾으며 그곳에서 작은 힘과 활력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고, 괜히 저도 뿌듯해졌습니다. 올해는 체조활동 뿐 아니라 간식 나눔, 실로폰 연주,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더군요.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대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공원으로 달려가 어르신들과 웃음을 나누며 건강을 선물하는 대리님의 열정과 섬세함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 박선자 -

면목, 마을에 살다

2024년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 기록

발행일 2025년 3월 18일

발행처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발행인 김영미

편집인 강예정 권수민 허준호

함께한 사람들 강예정 권수민 문효성 박선자 박민아 양지현 윤석호
윤지영 이다은 이예진 이주영 이준선 최영주 최진주
허준호

출판사 유페이퍼

주소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전화 02-436-0500

홈페이지 www.truem.or.kr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